

여연브리프

트렌드분석 및 빅데이터실
김장우 연구위원

금메달 한 번에 군 면제,
예술·체육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방안
—해외 사례 및 온라인 여론 분석—

2026년 10월 16일



금메달 한 번에 군 면제, 예술·체육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방안 -해외 사례 및 온라인 여론 분석-

여의도연구원 트렌드분석 및 빅데이터실 김장우 연구위원

12개국 비교: 메달 한 번으로 현역 복무를 면하는 나라는 한국뿐
댓글 22만 건 전수 판독, 공감 수 가중 시 97.8%가 특례 폐지·축소 의견
2029년 일몰을 법에 명시하고, 면제 대신 '복무 중 병행' 추진

53년 된 제도, 세 번째 큰 논란: 선수의 한마디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도입됐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는 34개월 동안 본업을 이어가며 544시간의 공익복무만 하면 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뒤 "저 군대 안 갑니다" 발언과 전역모 사진이 알려지면서 제도 존폐가 다시 쟁점이 됐다. 국방부는 10월 6일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을 밝혔고, 여야도 축소에 공감했다.

아시안게임 쏠림, 무늬만 국제대회, 느슨한 복무관리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체육요원 80명 중 65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편입됐고, 2026년 편입 대상 43명 중 36명은 프로 축구·야구 선수다. 단체종목 출전 요건이 2020년 삭제되면서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도 혜택을 받는다. 예술요원은 최근 5년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이며, 같은 5년간 예술·체육요원 전체의 공익복무 경고는 103건, 편입 취소는 7건이었다. 20세 남성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도의 정당성은 더욱 약해졌다.

콩쿠르 2위는 되고 빌보드 1위는 안 된다: BTS가 드러낸 기준의 공백

대중문화예술인은 편입 대상이 아니며, 2020년 개정법은 문화훈장 수훈자에게 30세까지 입영 연기만 허용했다. BTS는 2025년 6월 멤버 7명 전원이 복무를 마쳤다. 'BTS는 복무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면제된다'는 대비는 2026년 논란에서 특례 확대가 아닌 폐지의 논거로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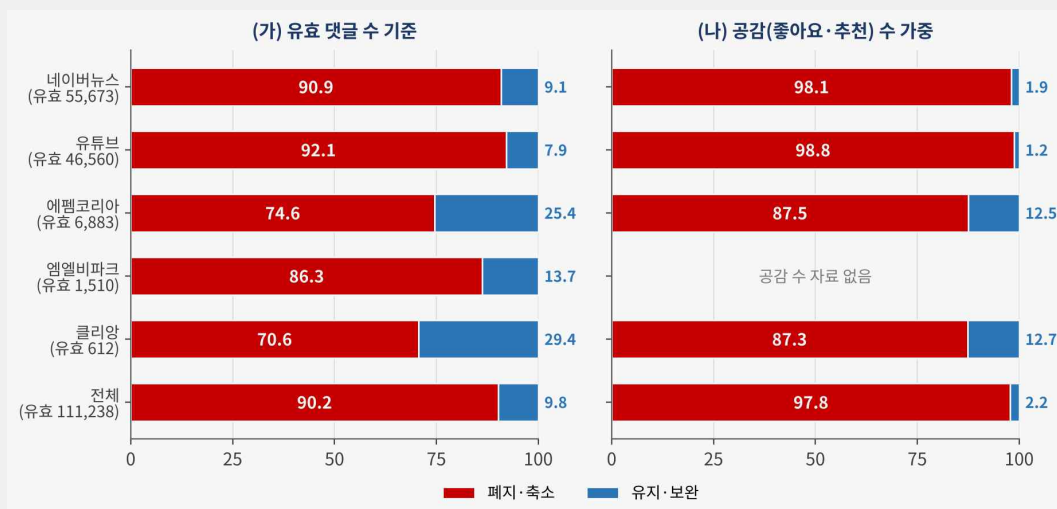
해외 12개국: 면제는 한국뿐, 보상은 '복무 안에서'

본 보고서가 비교한 해외 12개국 어디에도 대회 성적 한 번으로 현역 복무를 면제하는 제도는 없었다. 대만도 메달이 아닌 국가대표 자격을 기준으로 12일 훈련 뒤 5년간 관리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 시 현역으로 복무하게 한다. 이스라엘은 부대 활동을 하루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해 훈련을 보장하고, 스위스·핀란드는

군 안에서 복무와 훈련을 병행시키며, 싱가포르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복무하게 하고 특권을 남용하면 즉시 박탈한다. 국내 자료에서도 현업 복귀율은 국군체육부대 78.91%, 일반 현역병 12.49%로, 선수 경력을 지키는 것은 면제가 아니라 복무 형태였다.

온라인 여론: 공감 가중 97.8%가 폐지·축소, 유지론은 지지 못 받아

네이버뉴스·유튜브·에펨코리아·엠엘비파크·클리앙 댓글 220,632건을 전수 판독한 결과, 유효 댓글의 90.2%가 폐지·축소 의견이었고 공감 수로 가중하면 97.8% (유튜브 98.8%, 네이버뉴스 98.1%)에 달했다. 네이버뉴스에서 유지·보완 댓글은 공감 6,054회, 비공감 15,827회를 받아 비공감이 2.6배였다. 폐지·축소는 다섯 플랫폼 모두 유효 댓글의 70%를 넘었고, 국방부 발표 뒤 유튜브에서는 소급 적용 요구가 13.9%에서 25.4%로 늘었다. BTS를 언급한 댓글도 입장을 밝힌 댓글의 96.0%가 폐지·축소였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온라인에서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결론: 기준 보완이 아니라 폐지, 2029년 일몰을 법에 명시해야

해외 사례와 온라인 여론은 기준 보완이 아니라 폐지를 가리킨다. 2028년 LA 올림픽을 마지막 편입 대회로 하고 2029년부터 신규 편입을 끝내는 일몰 조항을 법률에 두어야 한다. 아시안게임 1위 편입은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부터 삭제하고, 예술요원 편입도 2027년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 대신 메달리스트와 국가대표에게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보장하고 복무 중 훈련·대회 참가를 규정으로 보장해 면제를 '복무 중 병행'으로 대체해야 한다. 제도가 남아 있는 동안 공익복무는 월 40시간으로 늘려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복무 중 광고·후원은 금지하며, 이번 대회 선수에게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I. 제도 개요와 53년의 변천

1. 현행 제도

□ 올림픽 3위·아시안게임 1위, 국제콩쿠르 2위면 보충역 편입

예술·체육요원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가운데 법령이 정한 대회 성적을 거둔 사람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편입해 자기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병역법은 예술·체육요원을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¹⁾ 편입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²⁾ 병무청이 안내하는 편입 기준을 보면,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이고, 예술 분야는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중 성적순 2명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1위 입상자 중 최고 성적자,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다.³⁾

편입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며, 2015년 7월 1일 이후 편입자는 복무기간 중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2019년 이후 명칭 '공익복무')을 이수해야 한다.⁴⁾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면제가 아닌 보충역 복무다. 다만 현역 복무 없이 본업을 계속하면서 복무기간을 채우므로 일반 청년에게는 면제와 다르지 않게 보인다.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2018~2019년과 2024년 일부 보도에서는 4주, 2026년 보도 대부분에서는 3주로 엇갈린다. 2020년 5월 육군이 보충역 훈련을 4주에서 3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 전환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다.⁵⁾

복무관리는 이원 구조다. 복무 지휘·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고, 경고·복무기간 연장·편입 취소 같은 제재는 병무청이 담당한다. 분기별 최소 24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고와 함께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고 미달 시간의 2배를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경고가 4회 이상 누적되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하면 고발 대상이 된다.⁶⁾

[표 1]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과 복무 조건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병역법 제33조의7~제33조의11, 시행령 제68조의11~제68조의20
체육 편입 기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2020.6.30. 단체종목 실제 출전 선수 한정 조항 삭제)

1) 「병역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2026.10.2. 시행) 제2조 제1항 제10호의3, 제33조의7~제33조의11.

2)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00호, 2026.8.25. 일부개정, 2026.8.28. 시행) 제68조의11~제68조의20.

3)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제도소개(편입기준·연혁·관련 법령)」, 병무청 누리집, 2026.10.12. 접속.

4) 뉴시스, 「정부, 국정회의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 확정」, 2019.11.21.

5) 뉴스핌, 「육군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4주→3주로 단축... '손흥민 효과'?', 2020.5.17.

6) 시대, 「병역특례 '대충 때우기' 5년새 100여건... "관리 강화" 목소리」, 2026.10.11.

구분	내용
예술 편입 기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중 성적순 2명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국제대회 없는 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5년 이상
인정 예술대회	35개 대회 95개 부문(국제음악 25, 국제무용 5, 국내 5), 2024.2.1. 기준
복무	기초군사훈련 후 34개월 해당 분야 복무, 공익복무 544시간(분기 최소 24시간)
관리·제재	지휘·감독 문체부, 제재 병무청. 기준 미달 시 경고·5일 연장·미달 시간 2배 이수, 경고 4회 이상 또는 허위 실적 고발

2. 53년의 변천: 확대와 축소의 반복

□ 1973년 특례법으로 신설, 1990년 올림픽 3위·아시안게임 1위로 축소

제도는 1973년 3월 3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설됐다.⁷⁾ 당시 체육 기준은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과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였고, 예술 기준은 국제 규모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이었다. 1984년에는 국내대회 1위 입상자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추가됐고, 1990년 4월 체육 기준이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축소되면서 지금의 틀이 갖춰졌다. 체육 분야 첫 수혜자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양정모였다.⁸⁾

이후 제도는 대회 성적에 따라 기준이 넓어졌다 좁아지기를 반복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직후 '월드컵 16위 이상' 조항이, 2006년 WBC 4강 직후 'WBC 4위 이상' 조항이 신설됐고, 특히 WBC 조항은 대회가 끝난 뒤 소급 적용됐다. 두 조항은 병역 혜택 남발과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논란 끝에 2007년 말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돼 2008년 1월 1일 기준부터 제외됐다.⁹⁾ 예술 분야 편입인정대회는 2008년 음악 123개, 무용 17개, 국내 8개 등 148개에 이르렀다가 2011년 국제음악대회 30개, 2015년 48개 대회 119개 부문, 2020년 42개, 2023년 36개, 2024년 2월 35개 대회 95개 부문으로 계속 줄었다.

복무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2년 10월 예술·체육 특례 공익요원의 공익활동이 사실상 없다는 보도가 나온 뒤, 2014년 12월 30일 병역법 개정으로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이 의무화됐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뒤에는 축구 선수 장현수의 봉사활동 증빙 조작이 드러나 병무청과 문체부가 2015년 7월 이후 편입자 전원을 전수조사했고,¹⁰⁾ 2018년 12월 병무청은 조사 대상 60명 중 31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¹¹⁾ 이를 계기로 정부 TF는 전면 폐지까지 검토했으나, 2019년 11월 21일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제도를 유지하되 공익복무 관리와 선발 기준을 보완하는

7)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2562호), 1973.3.3. 제정.

8) 뉴시스, 「[스잘알]양정모에서 손흥민까지...한국 체육요원 병역특례 변천사」, 2020.10.26.

9) 한국일보, 「병역특례 줘라, 마라... 월드컵·WBC 4강이 '고무줄 적용' 시작이었다」, 2021.8.14.

10) 데일리안, 「'제2의 장현수' 또 없나...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 개시」, 2018.11.5.

11) SBS, 「병무청 "예술 체육요원 60명 중 31명, 봉사활동 규정 위반"」, 2018.12.21.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유지 근거는 연간 편입 인원이 45명 안팎이어서 폐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작고, 세계 최상위 수준의 소수 인재가 국위선양과 국민 사기 진작에 기여한다는 점이었다.¹²⁾

[표 2] 예술·체육요원 제도 주요 연혁¹³⁾

시기	내용
1973.3.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체육 분야 특례 신설
1984.9.	국내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추가
1990.4.	체육 기준을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로 축소
2002.6. / 2006.9.	월드컵 16위 이상 / WBC 4위 이상 조항 신설(WBC는 소급 적용)
2007년 말	월드컵·WBC 조항 삭제(2008.1.1. 적용)
2008~2024	예술 편입인정대회 148개→35개(95개 부문)로 단계 축소
2014.12.	병역법 개정, 특기활동 봉사활동 544시간 의무화(2015.7.1. 편입자부터)
2018.9.~12.	자카르타·팔렘방 AG 42명 특례, 장현수 봉사 조작, 전수조사(60명 중 31명 위반)
2019.11.	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제도 유지, 공익복무 관리 강화, 대중문화예술인 제외
2020.6. / 2020.12.	단체종목 실제 출전 선수 한정 조항 삭제 /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30세) 병역법 개정
2023.9.~10.	항저우 AG: 축구 20명·야구 19명·LoL 5명 등 특례 대상
2026.10.	아이치·나고야 AG 논란, 국방부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주호영 의원 개정안 발의

3. 운영 규모와 수혜 구조

□ 최근 4년간 편입 173명, 체육요원 80명 중 65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173명이다.¹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80명의 편입 사유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65명, 올림픽 메달 15명이었다. 체육요원 10명 중 8명이 올림픽이 아닌 아시안게임으로 편입된 셈이다.¹⁵⁾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의 누계는 458명으로, 예술요원 280명(국내예술 138명, 국제 무용 89명, 국제음악 53명), 체육요원 178명(아시안게임 119명, 올림픽 59명)이었다.¹⁶⁾ 예술요원 편입 인원은 2020년 18명, 2021년 21명, 2022년 27명, 2023년 13명, 2024년 21명이었다.¹⁷⁾

12) 노컷뉴스, 「인구절벽에 병역자원 부족...산업지원 대체복무 1천3백명 감축」, 2019.11.21.

13) 뉴스핌, 「'BTS 병역법' 오늘 공포...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병역연기 대상에 포함」, 2020.12.22.; 연합뉴스,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공극적 추진"(종합)」, 2026.10.6.; 이데일리, 「AG 때마다 '무더기 병역특례'...53년 된 '국위선양' 잣대 손보나」, 2026.10.5.; 앞의 각주 3, 4, 9의 자료 참조.

14) SBS, 「[단독] 병역특례 취소됐다...공익활동 하랬더니" 버젓이」, 2026.10.6.

15) 뉴스1, 「최근 5년 병역특례 선수 10명 중 8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6.10.7.

16) 이데일리, 「'병역특례' 예술 특기자, 체육보다 1.5배 많아...대부분 국내대회 수상자」, 2018.9.10.

아시안게임 한 대회에서 편입 대상이 된 인원은 2010 광저우 42명, 2014 인천 66명, 2018 자카르타·팔렘방 42명이었고,¹⁸⁾ 2023 항저우 대회에서는 축구 22명 중 20명, 야구 24명 중 19명, 리그 오브 레전드(LoL) 5명 전원이 대상이 됐다.¹⁹⁾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2026 아이치·나고야 대회의 편입 대상은 43명이며, 그중 36명이 축구와 야구 선수다.²⁰⁾ 올림픽 메달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개인종목보다 프로 단체종목이 수혜의 중심인 구조가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7) 데일리안, 「[단독] 예술요원 병특, 국내 개최 국내대회에 집중돼...10년간 108명」, 2025.10.6.

18) 뉴시스, 「아시안게임 金 따고 병역특례...제도 개선 모색」, 2018.9.3.

19) 매일경제, 「축구·야구 金 땀지만 ... 찜찜한 병역면제」, 2023.10.8.

20) 헤럴드경제, 「최휘영 "병역특례 종합대책 강구"...AG '군 면제' 논란에 제도 손질」, 2026.10.7.

II.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종목 쏠림: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프로 단체종목

□ 2026년 특례 대상 43명 중 축구·야구 36명, 출전 16분과 투구 0개의 특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금 39개, 은 43개, 동 68개로 종합 3위를 지켰지만, 금메달 수는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44년 만에 가장 적었다.²¹⁾ 그럼에도 병역특례 대상은 43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축구 20명과 야구 16명이 36명을 차지했다.^{22)·23)} 야구 대표팀은 슈퍼라운드에서 사회인·실업 선수로 구성된 일본에 0대5로 졌다가 결승에서 3대1로 이겨 5연패를 달성했고, 축구 대표팀은 결승에서 일본을 1대0으로 꺾고 4연패를 이뤘다.^{24)·25)} 상대 전력과 관계없이 금메달 하나로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는 이번 대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단체종목의 '무임승차'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2019년 개선방안은 교체 출전으로 자격을 얻는 폐단을 막겠다며 '경기 출전자'로 한정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을 최종 등록 선수 전원으로 넓혔는데,²⁶⁾ 그 결과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명단에만 들면 특례를 받게 됐다. 2023 항저우 대회에서 야구 투수 박빈은 한 번도 등판하지 않고 특례를 받아 '0구 금메달'이라는 비판을 받았고,²⁷⁾ 2026 대회에서 전역모 사진을 올린 축구 박승수는 대회 기간 통틀어 16분을 뛰었다.²⁸⁾ 반면 세계선수권 우승은 편입 사유가 아니어서, 종목 간 보상 불균형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도 있다.²⁹⁾

프로 선수에게 특례가 집중되는 문제는 제도 설계와 맞닿아 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2015년 연구에서 모든 종목이 올림픽·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은 아니어서 종목 간 불균형이 생긴다고 보고, 2014 인천 대회의 프로종목 혜택이 축구 20명, 야구 13명, 농구 4명이었다고 지적했다.³⁰⁾ 2013년 9월 병무청이 올림픽 금 120점, 은 100점, 아시안게임 금 50점을 누적해 100점 이상이면 편입하는 누적점수제를 추진했다가 체육계 반발로 무산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온 시도였다.³¹⁾

21) 아시아투데이, 「44년 만에 최소 金, 병역 혜택 논란...아쉬움 남긴 아시안게임」, 2026.10.5.

22) 앞의 각주 20의 자료 참조.

23) 스타뉴스, 「'와' 김도영·문현빈 등 무려 16명 군 면제 혜택! KIA 3명 최다→삼성·롯데·SSG·KT·두산도 2명씩」, 2026.9.27.

24) 시사저널, 「태극마크 품격 저버린 금메달 환호...'병역특례 공정성' 촉발」, 2026.10.10.

25)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병역특례 재점검] ① 병력 남아돌던 때 만든 제도..."군대 안 갑니다"에 존폐 기로」, 2026.10.10.

26) 앞의 각주 4의 자료 참조.

27) 머니투데이, 「투구수 '0', 금메달 무임승차..."이름만 올려도 군 면제"」, 2026.10.6.

28) 시사저널, 「16분 뛰고 '군면제 인증샷'...국회 청원까지 등장한 병역특례 폐지」, 2026.10.6.

29) 데일리안, 「"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금메달 병역특례, 평등권 침해 소지 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2026.10.6.

30) 한국스포츠개발원(김대희·성문정),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5.4.

31) 허프포스트코리아, 「대회 자체보다 더 유명한 '코리안 병역특례'의 역사」, 2018.8.30.

2. '무늬만 국제대회': 예술요원의 국내대회 편중

□ 최근 5년 예술요원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
국내 개최 국제콩쿠르 참가자 최대 83%가 한국인

예술요원은 체육요원보다 인원이 많고, 편입 경로는 국내대회에 치우쳐 있다.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예술요원 280명 중 국내대회 입상자가 138명이었으며, 동아국악콩쿠르 45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30명, 서울국제무용콩쿠르 33명 등 소수 대회에 집중됐다.³²⁾ 2013~2023년 예술요원 281명 가운데 국내 주최 국내대회 출신이 120명, 국내 주최 국제대회 출신이 74명으로 둘을 합치면 69%였고,³³⁾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10년간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인 국내대회 5개 출신이 108명으로 집계됐다.³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의 실상도 드러났다. 병무청이 2023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은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83.0%, 서울국제무용콩쿠르 76.7%, 서울국제음악콩쿠르 70.5%였고, 2위 이내 입상자 중 한국인 비율은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음악콩쿠르가 100%였다. 2025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국제대회로 등록된 무용 콩쿠르 3개의 한국인 참가 비율이 62~84%라는 지적이 나왔고,³⁵⁾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무늬만 국제대회'로 특례를 받은 사람이 10년간 216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³⁶⁾

병무청은 2026년 10월 1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예술경연대회 편입 기준을 2위 이상에서 1위 입상으로 높이고, 국내 전통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2~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안을 보고했다. 훈령 개정은 2026년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³⁷⁾³⁸⁾ 다만 문체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10월 말 진행된다고 답해, 개정 대상과 시점에 관한 두 기관의 설명이 엇갈린다.³⁹⁾

[표 3] 예술요원 편입 경로(2020~2024년)

연도	총원	해외 개최 국제대회	국내 개최 국제대회	국내 개최 국내대회
2020	18명	0명	9명	9명
2021	21명	4명	8명	9명
2022	27명	1명	8명	18명

32) 앞의 각주 16의 자료 참조.

33) 데일리안, 「병역혜택 국제콩쿠르인데 참가자 83%가 한국인?...성일종 "재검토해야"」, 2023.10.14.

34) 앞의 각주 17의 자료 참조.

35) 뉴시스, 「최휘영, '무늬만 국제콩쿠르' 참석후 병역특혜' 지적에 "전수조사하겠다"」, 2025.10.14.

36) 아시아경제, 「"시행령 바꾸면 BTS도 면제, 그래도 군대갔다" 예체능 병역특례 공정성 논란」, 2025.10.21.

37) 국민일보, 「예술 병역특례 86%가 '국내대회'...병무청 "국제콩쿠르 1위로 상향"」, 2026.10.12.

38) 머니투데이, 「홍소영 병무청장 "아겜 부적절 발언 매우 유감...예술 병역특례 기준 상향"」, 2026.10.12.

39)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장관, 병역특례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2026 국감]」, 2026.10.7.

연도	총원	해외 개최 국제대회	국내 개최 국제대회	국내 개최 국내대회
2023	13명	2명	4명	7명
2024	21명	2명	8명	11명
합계	100명	9명	37명	54명

※ 병무청이 성일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기준. 합계는 본 보고서 계산.

3. 복무관리의 허점: 544시간과 검직

□ 5년간 편입 취소 7명, 경고 103건, 체육요원 복무규정 위반 42건 중 무허가 검직 22건

공익복무 544시간은 제도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장치이지만 관리는 느슨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익복무 미이행으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7명(2022년 5명, 2023년 2명)이고, 경고는 103건(허위 실적 2건, 이수 기준 위반 101건)이었다.⁴⁰⁾ 기간을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로 넓히면 경고는 104건(이수 기준 미달 102건, 허위 실적 2건)이다.⁴¹⁾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대상자 19명 가운데 3명이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⁴²⁾

검직 문제는 더 구조적이다. 체육요원이 광고·후원 등 외부 활동을 하려면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체부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2026년 8월 체육요원 복무규정 위반 42건 중 22건이 무허가 검직이었다. 적발자 21명 가운데 17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항저우 16명, 2025 하얼빈 동계 1명)였고, 종목별로는 야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 검직 적발은 2024년 8건에서 2025년 14건으로 늘었다.⁴³⁾ 2018 대회 금메달리스트 김진야는 2022년 봉사 실적을 에이전트가 작성하면서 약 10시간을 부풀린 일로 2023년 경고 처분을 받았고,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⁴⁴⁾

복무관리가 느슨한 배경에는 복무 지휘·감독은 문체부가, 제재는 병무청이 맡는 이원 구조가 있다. 2019년 개선방안은 요원이 직접 섭외하던 봉사 기관을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도록 바꾸고 하루 인정 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지만, 이후에도 분기 기준 미달 경고는 매년 반복됐다. 병무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용역에 공익복무 체제 개편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40) 문화일보, 「5년간 예술·체육요원 7명, 공익 복무 미이행으로 병역 특례 취소...경고는 103건」, 2026.10.7.

41) 앞의 각주 6의 자료 참조.

42) 앞의 각주 14의 자료 참조.

43) 파이낸셜뉴스(뉴스1), 「AG 금메달 따고 병역특례 받았는데...17명 '무허가 광고·후원' 적발」, 2026.10.1.

44) 조선일보, 「[단독] '축구 아시안게임 금' 김진야, 병역 특례 봉사자료 위조 적발」, 2024.9.4.

4.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 20세 남성 2040년 13만~15만 명대, 현역 48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제도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 1973년은 병역자원이 넘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입대 가능한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 2천 명에서 2022년 25만 7천 명으로 줄었고, 2035년 22만 8천 명, 2043년 1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⁴⁵⁾ 현역입영 대상자는 2016년 45만 5,551명에서 2025년 32만 2,674명으로 10년 사이 29.2% 감소했다.⁴⁶⁾ 2040년 20세 남성 인구 전망은 자료에 따라 13만 명(국방부), 14만 명(장래 인구추계), 15만 5천 명(한국국방연구원 추계)으로 차이가 있지만, 줄어든다는 방향은 모두 같다.

국방부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현역 병력을 48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13만 명 줄이고 간부 비율을 높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병역특례는 일부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잡았다. 보충역 8개 분야 가운데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간은 34개월로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길다. 그러나 현역 복무 없이 본업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2026년 8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공공 필수 분야는 최소 인력을 유지하되,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는 상당 폭의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은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2019년 국방부가 성인 2,000명을 조사했을 때 체육 특기자 병역특례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5.6%였지만,⁴⁷⁾ 2022년 BTS 대체복무 논쟁 당시에도 18~29세·20대의 찬성은 대체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III 장 5절). 이번 논란에서도 '매년 입대하는 청년은 호구인가'라는 반응이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되풀이됐다.

5. 2026년 아시안게임 논란의 전개와 정부·정치권의 대응

□ 10월 3일 "저 군대 안 갑니다", 10월 6일 국방부 "감축·폐지 추진", 10월 7~8일 여야 "축소" 공감

논란의 발단은 선수들의 언행이었다. 9월 27일 야구 결승 뒤 주장 노시환은 과정보다 금메달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0월 3일 축구 결승 뒤에는 주장 이기혁이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으며,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⁴⁸⁾ 선수들은 10월 4일 귀국하면서 사과했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45) 서울경제, 「50년 넘은 대체복무, 시대 동떨어져...특혜논란 겹쳐 개편 불가피」, 2026.10.7.

46) 데일리안(연합뉴스 인터뷰 인용), 「병무청장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축소 검토 중"」, 2026.8.9.

47) 이데일리, 「'국위선양 보상' 당연 vs 구시대 산물 폐지...또 불거진 체육병역특례」, 2023.10.16.

48) 머니투데이, 「금메달보다 군면제? 자랑했다가 고개 숙였다...불붙은 병역특례 논란」, 2026.10.4.

10월 5일 해단식에서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은 국민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⁴⁹⁾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 전반을 재검토하는 정책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11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⁵⁰⁾ 10월 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답했고,⁵¹⁾ 같은 날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체육계·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0월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홍소영 병무청장은 폐지 입장이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면서도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선수 지원체계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폐지 목표 연도를 정하고,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줄여 가는 방안"이 맞다고 밝혔다.⁵²⁾

국회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0월 2일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중 얻은 소득 가운데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 초과분에 5~30%의 기여금을 부과해 군인 복지기금에 귀속시키는 '기여금 3법'(병역법·군인복지기금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⁵³⁾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명은 10월 6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튿날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편입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의 일률 편입 기준은 삭제하되 올림픽 3위 이상은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히 높인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도 절차를 거쳐 편입하도록 했다.^{54)·55)·56)}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0월 7일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당내 검토를 지시했고,⁵⁷⁾ 김성희 원내대변인은 이튿날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내에서 공감대 있었다"고 전했다.⁵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형평성 차원의 보완 필요성과 함께 운용 실태 검증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며 누적 성적 반영을, 안철수 의원은 이번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면제를 없애는 시행령 개정을 각각 주장했다.⁵⁹⁾

소급 적용은 법적 쟁점이다. 현행 시행령상 이번 금메달리스트는 편입 요건을 갖췄고 문체부 추천과 병무청 편입 절차만 남아 있다. 법조계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사람에게 기준

49) 미주중앙일보, 「전역모 쓰고 "군대 안 간다"는 국내...불붙은 '병역특례 폐지론」, 2026.10.5.

50) 앞의 각주 13의 자료 참조.

51) 시사저널, 「"군대 안 갑니다" 논란에...강신철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해 궁극적 폐지 목표", 2026.10.7.

52) 서울경제, 「병무청장 "AG 선수들 병특 연행 매우 유감...특례 폐지해야" [국감 2026], 2026.10.12.

53) 로이슈,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10.6.

54) 국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221817), 2026.10.6. 제안.

55) 세계일보,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도 군대 간다?...주호영, 병역특례 폐지법 발의, 2026.10.7.

56) 뉴스핌, 「국힘 주호영 의원, 'AG 금메달 병역 특례' 폐지 법안 대표 발의, 2026.10.8.

57) 조세일보, 「예술·체육 병역특례 개편 급물살...여야·정부 "대상·방식 크게 손봐야", 2026.10.7.

58)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병역특례 축소 공감대...정부안 나오면 여야 논의", 2026.10.8.

59) 한국경제, 「"병역특례 없애자" 시끌...금메달 이미 땀는데 입대 가능할까 [법알못], 2026.10.7.

변경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본다.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부칙 경과규정을 두어 다음 대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10월 8일 김재원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기혁·양민혁·박승수 3명의 추천원서는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디에도 접수되지 않았다.⁶⁰⁾

[표 4] 2026년 아시안게임 논란 일지(9월 27일~10월 12일)⁶¹⁾

일자	내용
9.27.	야구 결승 3-1 승(5연패), 미필 16명 특례 대상. 노시환 "금메달이 중요" 발언
10.2.	LoL 금메달(3명 특례). 차규근 의원 '기여금 3법' 발의
10.3.	축구 결승 1-0 승(4연패). 이기혁 "저 군대 안 갑니다", 양민혁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박승수 전역모 사진
10.4.	폐막. 선수 사과. 안철수·나경원 의원 SNS 포스팅
10.5.	유승민 체육회장 사과. 국민동의청원 등록. 여야 폐지·재검토 요구 확산
10.6.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주호영 의원 등 개정안 발의
10.7.	국방부 장관 "점진적 축소, 궁극적 폐지". 문체부 장관 "축소 방향". 주호영 의원 개정안 공개. 김민석 대표 "대상·방식 크게 손봐야"
10.8.	민주당 원내 "축소 공감"
10.12.	병무청 국정감사: 예술요원 86.6% 국내대회, 국제대회 1위로 특례 조건 상향, 체육요원 연구용역 11월

60) 더팩트, 「[단독] '군 면제' 외친 이기혁·양민혁·박승수, 병역특례 신청은 아직」, 2026.10.9.

61) 한국일보, 「"군 면제, BTS가 더 자격 있어"...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 청원 등장」, 2026.10.6.; 앞의 각주 13, 25, 38, 39, 48, 49, 51, 53, 55, 57의 자료 참조.

Ⅲ. 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BTS 사례

1. 콩쿠르 2위는 되고 빌보드 1위는 안 되는 구조

□ 2018년 국회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 2019년 정부는 "대중문화 제외" 확정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이 정한 예술 분야 편입 경로는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입상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뿐이어서 대중음악에는 애초에 통로가 없다.⁶²⁾ 이 문제가 공론화된 계기는 2018년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빌보드에서 1등한 방탄소년단은 해당이 안 된다"고 지적한 일이었다. 그해 5월 BTS의 정규 3집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직후였고, 발단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미필 선수 선발 논란이었다.⁶³⁾ 같은 해 10월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오히려 예술·체육 특례 전반의 폐지·축소론이 분출했고, 기찬수 병무청장은 "폐지까지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⁶⁴⁾

정부의 결론은 2019년 11월 21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이었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유지하되 대중문화예술 분야 편입 확대 요구는 검토에서 제외했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려는 기본 입장에 맞지 않고, 콩쿠르나 메달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다. 문체부 대중문화 산업과장은 향후에도 대중문화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 검토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전했다.^{65)·66)} 결과적으로 같은 예술 안에서도 순수예술 콩쿠르 입상자는 편입되고 대중음악은 제외되는 구조가 공식화됐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2022년 4월 입장문에서 2015~2019년 예술·체육 대체복무 인원 258명(예술요원 140여 명)은 전문연구요원 12,538명·산업기능요원 55,202명·승선근무예비역 4,783명에 비하면 0.35%(예술요원 0.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국제음악콩쿠르 28개의 1·2위는 대체복무가 가능하고 대중음악에는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⁶⁷⁾ 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스포츠나 순수예술에는 메달과 콩쿠르 순위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대중문화에는 그런 기준이 없고, 빌보드 1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2위 이하나 다른 차트를 어떻게 다룰지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68)·69)}

62) 앞의 각주 2의 자료 참조.

63) 경향신문, 「2018년 시작된 BTS 병역특례 논란, 병역법 개정안까지 나왔지만 입대로 마무리」, 2022.10.17.

64) 이데일리,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제, 시대착오적"... 병무청장 "전면 재검토"」, 2018.10.23.

65) 앞의 각주 4의 자료 참조.

66) 이투데이, 「정부, 병역대체복무 인원 2026년까지 7500명→6200명으로...BTS 대체복무는 "인정 안 해"」, 2019.11.21.; 뉴시스, 「문체부 "티켓 판매는 예술요원 봉사서 제외...BTS 논란은 일단락"」, 2019.11.21.

67) 헤럴드경제, 「'뜨거운 감자' 된 BTS 병역특례...대중문화인 홀대 vs 불공평」, 2022.4.29.

68) 머니투데이, 「이젠, BTS보다 성공해야 軍면제?...병역특례 논란 끝나지 않았다」, 2022.10.23.

69) 서울신문, 「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법안 보류」, 2021.11.25.

2. 입영연기법(2020년)과 그 한계

□ 문화훈장 수훈자만 30세까지 연기, 요건 충족자는 BTS뿐

국회가 택한 절충은 편입이 아니라 입영 연기였다. 2020년 12월 1일 본회의는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53, 반대 2, 기권 13으로 통과시켰고,⁷⁰⁾ 개정법은 12월 22일 공포돼 2021년 6월 시행됐다.⁷¹⁾ 시행령은 연기 대상을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상한 연령을 30세로 정했다.⁷²⁾

이 요건은 사실상 BTS 한 팀을 위한 것이었다. 문화훈장 포상후보 추천의 기본조건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15년 이상 활동이고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문화포장이 수여된 적이 없어서 20대 가수는 사실상 요건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었다.⁷³⁾ 역대 대중가수 문화훈장 수훈 연령은 조용필 63세, 남진 59세, 태진아 48세, 싸이 34세였고,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당시 진 26세, 정국 21세)를 빼면 입영연기 상한 전에 받은 사람이 없다.⁷⁴⁾ 대중문화예술인을 아예 예술요원에 편입하는 개정안은 2021년 윤상현·성일종·안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2021년 11월 25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당시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⁷⁵⁾

2022년에는 정부 안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5월 퇴임 전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했고,⁷⁶⁾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8월 국방위에서 BTS가 군에 복무하면서 연습 시간을 받고 해외 공연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언급했으나, 9월 대정부질문에서는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 확대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77)·78)}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는 BTS의 병역 복무가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이 개정되면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⁷⁹⁾

3. BTS의 병역 이행과 복귀

□ 2022년 12월부터 순차 입대, 2025년 6월 7명 전원 복무 완료

논쟁을 정리한 것은 BTS 자신들이었다. 하이브는 2022년 10월 17일 공시에서 "멤버진은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이며

70) 이투데이,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2020.12.1.

71) 앞의 각주 13의 자료 참조.

72) 파이낸셜뉴스(뉴시스), 「男연예인 30세까지 입영연기하려면 문화훈장·포장 필요」, 2021.3.2.

73) YTN Star,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아이돌 병역 연기엔 훈장 필수? 비현실적" 분통」, 2021.4.8.

74) 뉴스핌, 「만 21세에 문화훈장...BTS 말고 가능한가요?」, 2021.2.24.

75) 머니투데이, 「"BTS도 대체복무 가능"...윤상현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개정안 발의」, 2021.6.25.

76) 경향신문, 「황희 문체부 장관, BTS 등 대중문화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촉구」, 2022.5.4.

77) 서울신문, 「국방장관 "BTS 군에 오되, 연습시간 주고 해외서도 공연 가능"」, 2022.8.1.

78) 서울신문, 「BTS '대체복무' 우세 여론에도... 국방장관 "확대 어렵다"」, 2022.9.21.

79) 뉴시스, 「이종섭 "공정·형평성 위해 BTS 병역복무가 바람직...입대하면 활동 보장"(종합)」, 2022.10.4.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한다고 밝혔다.⁸⁰⁾ 진은 2022년 12월 13일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해 조교로 복무했고, 제이홉은 2023년 4월 18일 제36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⁸¹⁾ 슈가는 2023년 9월 22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고, RM과 뷔는 2023년 12월 11일, 지민과 정국은 12월 12일 입대했다. 진은 2024년 6월 12일, 제이홉은 10월 17일, RM·뷔는 2025년 6월 10일, 지민·정국은 6월 11일 전역했고, 슈가가 6월 21일 소집해제되면서 7명 전원이 병역을 마쳤다.^{82)·83)·84)}

복귀 이후의 성과는 '국위선양'이라는 제도의 명분을 다시 묻게 했다. BTS는 2026년 3월 20일 정규 5집 「ARIRANG」을 내고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넷플릭스로 190개국에 생중계된 컴백 공연을 열었으며,⁸⁵⁾ 4월 9일 고양에서 월드투어를 시작했다.⁸⁶⁾ 하이브의 2026년 2분기 매출은 1조 4,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5.5% 늘어 분기 매출 1조 원을 처음 넘었다.⁸⁷⁾

[표 5] BTS 멤버별 병역 이행 현황

멤버	입대·소집일	복무 형태·소속	전역·소집해제일
진	2022.12.13.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2024.6.12.
제이홉	2023.4.18.	육군, 제36보병사단 신병교육대	2024.10.17.
슈가	2023.9.22.	사회복무요원	2025.6.21.
RM	2023.12.11.	육군, 제15보병사단 군악대	2025.6.10.
뷔	2023.12.11.	육군, 제2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2025.6.10.
지민	2023.12.12.	육군, 제5보병사단	2025.6.11.
정국	2023.12.12.	육군, 제5보병사단	2025.6.11.

4. 경제효과 추계와 '국위선양' 기준의 모호성

□ 연 4조 1,400억 원 생산유발, 콘서트 1회 최대 1조 2,207억 원

BTS의 경제적 기여를 추계한 자료는 여러 건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12월 BTS의 연평균 국내 생산유발효과를 4조 1,4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를 1조 4,200억 원으로 추산하고, 2014~2023년 10년 누적 효과를 56조 1,600억 원으로 전망했다.⁸⁸⁾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0년 9월 '다이너마이트'의 빌보드 핫100 1위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80) 이데일리, 「하이브 "BTS 진, 입영 연기 철회...순차적 병역 이행 예정"」, 2022.10.17.

81) 뉴스핌, 「'BTS' 제이홉, 4월 18일 원주 36사단 입대...진, 연천 5사단 조교 복무 중」, 2023.4.14.

82) 스타뉴스, 「방탄소년단 RM·뷔→지민·정국, 오늘부터 '완전체 전역'..빅히트 "WE ARE BACK"」, 2025.6.10.

83) 머니투데이, 「BTS 슈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마쳤다...휴가 소진 중」, 2025.6.19.

84) 경향신문, 「BTS 제이홉 군 복무 마치고 전역」, 2024.10.17.

85) 아시아경제, 「'경제효과 3兆' BTS 컴백...광화문 채운 세계인의 아리랑」, 2026.3.21.

86) 서울신문, 「컴백 효과 2조 9000억 전망... BTS노믹스 2.0 시작됐다」, 2026.3.20.

87) 서울신문, 「하이브, 분기 매출 첫 1조 돌파...BTS 컴백 효과 톡톡」, 2026.7.28.

88) 현대경제연구원(정민 외),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효과」, 현안과 과제, 2018.12.18.

1조 2,324억 원, 부가가치유발 4,801억 원, 고용유발 7,928명 등 약 1조 7,000억 원으로 발표했고,⁸⁹⁾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2년 4월 국내 콘서트 1회당 파급효과를 최대 1조 2,207억 원으로 추산했다.⁹⁰⁾ 2026년 컴백에 대해서는 증권가가 앨범·투어 매출을 최소 2조 9,000억 원으로, 블룸버그가 광화문 공연 1회의 서울 파급효과를 1억 7,700만 달러로 추산했다.⁹¹⁾ 각 수치는 가정과 산정 기준이 달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 개와 견줄 만한 규모는 아니다.

그런데도 BTS는 특례 대상이 되지 못했고, 이러한 대비는 2025년과 2026년 국정감사에서 반복해서 거론됐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2025년 10월 20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분야와 관계없이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래미·빌보드 같은 세계적 음악상 수상자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TS는 시행령만 바꾸면 면제가 가능했는데도 군에 갔으며, '국제'라는 이름만 붙인 국내대회로 특례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216명이라고 했다.⁹²⁾ 2026년 10월 7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BTS보다 국위선양을 더 했느냐고 물었고, 강신철 장관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원에게 복무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⁹³⁾

쟁점의 핵심은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의 모호성이다. 1973년 법 조문에는 국위선양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으나, 현행 병역법 제2조에는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 명시돼 있다.^{94)·95)} 그러나 국위선양의 크기를 썰 잴대는 없다. 세계선수권 우승은 안 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되는 체육 내부의 불균형, 콩쿠르는 되고 빌보드는 안 되는 예술 내부의 불균형, 그리고 과학자·기업인처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다른 직업군과의 불균형은 모두 같은 기준의 공백에서 비롯된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연구위원은 병역이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지는 공적 의무로서 개인의 성취와는 범주가 다르다고 보고, 과학자·기업인에게 병역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국위선양 논리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⁹⁶⁾

5. 여론의 분화와 2026년의 소환

□ 2020~2022년 조사는 문항에 따라 엇갈렸고, 젊은 층 찬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대중문화예술인 특례에 대한 여론은 조사 기관과 문항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2020년 10월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계속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46%,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안 된다" 48%로 팽팽했다.⁹⁷⁾ 2022년 4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89) 이투데이,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1조7000억 원"」, 2020.9.7.

90) 이데일리, 「BTS 콘서트 경제효과 '1회당 최대 1조2000억'」, 2022.4.20.

91) 전자신문,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BTS...광화문 공연 한번으로 2666억 경제효과」, 2026.3.21.

92) 앞의 각주 36의 자료 참조.

93) 앞의 각주 51의 자료 참조.

94) 시사오늘, 「'국위선양'서 '공정'으로...병역특례, 이번엔 바뀔까 [옛날신문보기]」, 2026.10.7.

95) 앞의 각주 1의 자료 참조.

96) 뉴시스, 「메달=軍복무 면제...다른 징병제 국가들 봐도 우리만 '튀는 제도'」, 2026.10.11.

97) 한국일보, 「BTS 병역특례 찬반 팽팽... "포함해야" 46% vs "안 된다" 48%」, 2020.10.11.

대중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으나,⁹⁸⁾ 같은 해 9월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 54.1%,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 40.1%로 결과가 뒤집혔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2022년 9월 14~15일)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개정안에 찬성 60.9%, 반대 34.3%였고, 시사리서치 조사(9월 20일)에서는 BTS 대체복무 찬성 57.2%, 반대 41.5%였다.^{99)·100)·101)}

연령별로는 젊은 층의 찬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찬반의 방향은 조사마다 달랐다.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20대의 73.2%가 병역 의무 이행을 택했고, 시사리서치 조사에서도 18~29세는 "군대에 가야 한다" 66.7%, "대체복무" 30.8%였다. 반면 미디어트리뷴이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2022년 9월 8일, 2,000명)에서는 BTS 대체복무 전환에 동의 67.5%, 비동의 31.3%였다. 이 조사에서 18~29세의 동의는 56.4%로 연령대 중 가장 낮았지만 여전히 우세했고, 2022년 4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0대 남성의 57%가 대중예술인의 특례 포함에 찬성했다.^{102)·103)} 이러한 격차를 두고 젊은 층은 공정성과 병역 원칙을, 기성세대는 국익과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표 6]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대체복무 여론조사(2020~2022년)

조사 시기	기관(의뢰)	문항 취지	결과
2020.10.8~10.	NBS(4개사 공동)	병역특례 대상 포함 여부	포함 46%, 반대 48%
2022.4.5~7.	한국갤럽	대중예술인 특례 대상 포함	포함 59%, 반대 33%
2022.9.4.	조원씨앤아이 (스트레이트뉴스)	병역 의무 vs 특례	의무 54.1%, 특례 40.1%
2022.9.8.	리얼미터 (미디어트리뷴)	BTS 대체복무 전환 동의	동의 67.5%, 비동의 31.3%
2022.9.14~15.	리얼미터 (국회 국방위)	예술·체육요원 편입 개정안 찬반	찬성 60.9%, 반대 34.3%
2022.9.20.	시사리서치(시사저널)	BTS 대체복무 찬반	찬성 57.2%, 반대 41.5%

※ 표본은 NBS 1,009명, 갤럽 1,004명, 조원씨앤아이 1,001명, 리얼미터 2,000명(9.8.)·1,018명(9.14~15.), 시사리서치 1,009명. 표본오차는 확인된 조사 기준 95% 신뢰수준 $\pm 3.1\%p$ 안팎

2026년 논란에서 BTS는 '포함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논거'로 소환됐다. 나경원 의원은 10월 4일 BTS도 세계 무대에서 크게 국위선양을 했지만 병역을 이행했다며,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했다.¹⁰⁴⁾ 10월 5일 등록된 국민동의청원은 "BTS 같은 청년들이 서구권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도 않는 아시안게임 승자보다 더 자격이

98) 이투데이, 「국민 10명 중 6명 "BTS, 군대 안가도 된다"...'대중예술인 병역특례' 갤럽조사」, 2022.4.8.

99) 한국일보, 「국민 54% "BTS 군대 가야죠"... 20대는 73%가 "병역특례 반대"」, 2022.9.6.

100) 서울신문, 「"BTS 대체복무 전환, 찬성 60.9%·반대 34.3%"」, 2022.9.18.

101) 시사저널, 「[시사저널 여론조사] BTS 대체복무 찬성 57.2%, 반대 41.5%」, 2022.9.23.

102) 뉴시스, 「BTS 병역특례 도입, 국민 여론은...조사따라 앞치락뒤치락」, 2022.9.10.

103) 한국일보, 「노웅래-성일종...'BTS 병역 특례' 눈덩이는 정치권이 굴렸다」, 2022.4.16.

104) KBS, 「'군 면제' 발언 논란에...안철수 "군대가 혐오시설?" 나경원 "특례 재검토 필요"」, 2026.10.4.

있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적었다.¹⁰⁵⁾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대비를 들어 제도 재정비 또는 폐지를 주장했고,^{106)·107)} AP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이 의무복무를 하고 BTS도 병역을 이행한 상황에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고 보도했다.¹⁰⁸⁾ 21대 국회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에 포함하자던 논의는 2026년에 이르러 "BTS도 갔는데 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면제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형평성의 해법이 특례의 확대가 아니라 축소 쪽으로 모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105) 앞의 각주 61의 자료 참조.

106) 주간경향, 「"BTS도 다녀왔다"...정치권 병역특례 폐지론 확산」, 2026.10.5.

107) 헤럴드경제, 「유승민 "BTS도 군대 가는데...스포츠·예술 병역특례 공정한가"」, 2026.10.5.

108) 헤럴드경제, 「'군 면제' 발언이 건드린 반백 년 병역특례...존폐 기로」, 2026.10.7.

IV. 해외 사례

1. 비교의 틀

본 보고서는 운동선수·예술인의 병역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12개국(징병제 11개국과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한 독일)의 제도를 공식 법령·정부 안내·현지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대회 성적을 조건으로 현역 복무 자체를 면하는 '면제형', 둘째는 복무하면서 훈련·대회·공연을 병행하도록 편의를 주는 '병행형', 셋째는 복무 시기를 늦추되 결국 복무하게 하는 '연기형'이다. 열람한 범위에서 메달 한 번으로 현역 복무를 면하는 방식은 한국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만만이 '국가대표 자격'을 기준으로 12일 훈련 뒤 보충병역을 두어 가장 유사했다.^{109)·110)}

2. 국가별 제도

□ 대만: 국가대표에게 12일 보충병역, 그 대신 5년간 관리와 불이행 시 현역 복무

대만은 「國家體育競技代表隊服補充兵役辦法」(국가체육경기대표팀 보충병역 복무 판법)에 따라, 전국 단위 체육단체의 공개 선발을 거쳐 올림픽·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세계 및 아시아 선수권 등에 출전하고 행정원이 국가대표로 핵정(核定)한 선수를 보충병역으로 처리한다. 명시된 종목 외의 종목은 올림픽 8위 이내, 아시안게임 6위 이내, 유니버시아드 3위 이내에 들면 대상이 된다.¹¹¹⁾ 군사훈련 기간은 12일이며, 선수는 핵정(核定)일로부터 5년간 체육 당국의 관리를 받으면서 지정 훈련과 대회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5년 안에 핵정(核定) 사유가 사라지거나 훈련·대회에 불참하면 핵정(核定)이 폐지되고, 이미 보충병역 증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시소집으로 입영해 부족한 복무를 현역으로 채워야 한다. 현지 매체는 "대만 운동선수는 '면역'이 아니라 보충병역 처리"라고 설명하며, 2019년 국가대표 자격을 얻은 야구선수 장위청이 2020년 12일간의 보충병역을 마친 뒤 2023년 WBC 때도 관리 대상이었던 사례를 든다. 메달이 아니라 '국가대표 자격'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혜택 뒤에 5년의 의무가 따른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예술 분야에는 별도 경로가 있다. 대만 문화부는 국제·전국 문화상에서 3위 이내에 든 병역 대상 남성을 공개 평가로 선발하지만(2026년 정원 20명), 이들도 면제가 아니라 문화부가 지정한 곳에서 6개월간 대체복무를 한다([표 7] 참조).

109) 앞의 각주 96의 자료 참조.

110) 運動視界, 「運動員要不要當兵? 盤點台灣運動員免役及替代役規定」, 2025.6.5.

111) 中華民國 運動部, 「國家體育競技代表隊服補充兵役辦法」(2001.6.6. 제정, 2015.5.20. 개정), 主管法規共用系統, 2026.10.12. 접속.

□ 이스라엘: 면제 없이 복무하되 부대 활동은 하루 최대 6시간, 예술가도 같은 구조

이스라엘군(IDF)의 '우수 운동선수' 제도는 면제가 아니라 복무를 계속하면서 훈련과 대회를 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체육국이 승인한 우수 운동선수는 훈련장에서 60km 이내의 부대에 배치되며, 부대 활동은 하루 최대 6시간까지만 하고 이후에는 훈련을 위해 풀려난다. 경비·당직은 월 2회 이내이고, 특별휴가는 연 90일, 복무 연기는 연 120일까지 가능하다. 무용수·음악가·활동 예술가에게도 같은 구조의 지위가 있으며, 음악가는 먼저 군악대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¹¹²⁾ 남성 의무복무 기간은 32개월이며, 2024년 7월 각료회의는 이를 36개월로 늘리는 연장안을 의결했다.¹¹³⁾

□ 싱가포르: "병역법은 재능에 눈감는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복무

싱가포르의 제도가 가장 엄격하다. 응옌헨 국방장관은 2018년 의회에서 "병역법은 재능과 개인 사정에 눈감는다"며, 국익에 봉사하는 경우에만 매우 선별적으로 연기를 허용하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연기도 끝난다고 답했다. 올림픽 훈련을 위해 장기 연기를 받은 선수는 조지프 스쿨링 등 3명뿐이었다.¹¹⁴⁾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스쿨링은 2021년 8월 연기가 끝나 2022년 1월 입대했다. 그러나 복무 중 대회 참가를 위한 단기 외출 기간에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복무 중 훈련·대회 참가 특권을 모두 박탈당했다.¹¹⁵⁾ 잉글랜드 풀럼과 계약한 축구선수 벤 데이비스의 연기 신청은 2018년 "국익이 아닌 개인 경력"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으며, 국방부는 이를 허용하면 "싱가포르인의 정신과 희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¹¹⁶⁾

□ 스위스·오스트리아·핀란드·독일: 군 안에 선수를 두는 '병행형'

유럽 징병제 국가들은 군 안에 엘리트 선수 과정을 두어 복무와 훈련을 병행하게 한다. 스위스는 18주 과정의 엘리트스포츠 신병학교(Spitzensport-RS)를 연 2회, 회당 최대 70명 규모로 운영하며, 수료 이후에는 국제대회 준비·출전에 연 최대 30일의 의무복무일과 100일의 자원 추가복무일을 쓸 수 있게 한다.^{117)·118)} 오스트리아 연방군 소속 군 스포츠 선수는 2026년 3월 기준 451명으로 54개 종목에 걸쳐 11개 센터에서 훈련하며,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오스트리아가 딴 메달 18개 중 12개를 이들이 획득했다.¹¹⁹⁾ 핀란드 국방군 스포츠학교는 347일 또는 165일 복무 기간 중 각각 95일과 45일의 체육 파견휴가를 주며,

112) Israel Defense Forces(IDF) 입대 안내 누리집(mitgaisim.idf.il), 「운동선수·음악가·예술가·무용수: 이스라엘군의 우수자 제도」(히브리어 원문, 제목은 본 보고서 번역), 2026.10.12. 접속.

113) JURIST, "Israel ministers vote unanimously in favor of law extend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2024.7.15.

114) Singapore Ministry of Defence, "Oral Reply by Minister for Defence Dr Ng Eng Hen, to Parliamentary Questions on National Service Deferment", 2018.8.6.

115) Malay Mail, "Olympic champion Joseph Schooling issued warning over cannabis use, has all sporting privileges revoked, says Singapore Defence Ministry", 2022.8.30.

116) Singapore Ministry of Defence, "Reply to Media Queries on the Rejection of Benjamin Davis' Deferment from Full-time NS", 2018.7.18.

117) Schweizer Armee, "Spitzensport-Rekrutenschule 79", 2026.10.12. 접속.

118) Swiss Ice Skating, "Förderung des Spitzensports durch die Armee für Eiskunstlauf und Eistanz", 2024.9.15.

119) Militär Aktuell, "Bundesheer zählt aktuell 451 Heeressportler", 2026.3.1.

"스포츠학교의 목적은 일반 병역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한다.¹²⁰⁾ 징병제를 중단한 독일도 연방군에 엘리트스포츠 지원 자리 약 1,000개를 두고, 11개월 자원복무 계약을 기간제 군인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선수를 지원한다.¹²¹⁾ 러시아도 2013년 스포츠 중대를 창설해 국가대표급 징집병을 모아 12개월간 복무하게 한다.¹²²⁾ 예술인도 군 안에서 활동한다. 스위스는 징병검사 때 전문시험을 거친 징집병을, 핀란드는 자체 선발시험을 거친 징집병을 군악대에 배치하고, 오스트리아도 의무복무자를 군악대에서 복무하게 한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로프 앙상블 역시 징집병이 복무하는 군부대다([표 7] 참조).

□ 튀르키예·그리스·태국·베트남: 연기 또는 특례 없음

튀르키예는 현역 운동선수와 예술인에게 35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용하지만 면제는 아니며, 이는 전 국민 대상 유료 단기복무(1개월) 제도와의 별개다.¹²³⁾ 그리스는 올림픽·세계대회 입상자에게 최대 30일의 명예휴가와 예비역 장교 지위를 주지만, 복무 단축이나 면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¹²⁴⁾ 태국의 1954년 병역법은 추첨 징집을 기본으로 하며 면제·연기 사유에 운동선수 조항을 두지 않고,¹²⁵⁾ 베트남 병역법 해설은 AFF컵 우승이 면제·연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¹²⁶⁾

[표 7] 징병제 국가의 운동선수·예술인 병역 처리 방식¹²⁷⁾

국가	유형	핵심 내용	예술인
한국	면제형 (보충역)	올림픽 3위·AG 1위, 34개월 본업 복무+공익복무 544시간	국제콩쿠르 2위· 국내 1위· 무형유산 전수
대만	면제형에 가까움	국가대표 행정((核定) 시 12일 훈련, 5년 관리, 불이행 시 현역 보충 복무	문화상 수상자 20명 선발, 6개월 대체복무
이스라엘	병행형	32개월 복무, 부대 활동 하루 최대 6시간 (이후 훈련), 특별휴가 연 90일	무용수·음악가 동일 구조
스위스	병행형	18주 엘리트 신병학교, 연 30일 의무+ 100일 자원 복무일	군악대 복무 (징병 검사 시 전문시험)
오스트리아	병행형	군 스포츠 선수 451명, 54개 종목	의무복무자의 군악대 복무

120) Puolustusvoimat(핀란드 국방군), "Puolustusvoimien Urheilukoulu"(스포츠학교 소개 자료, Suomen Judoilitto 기사), 2025.12.

121) Bundeswehr, "Sportsoldat werden", 2025.12.9.

122) Коммерсантъ, "Труба зовет"(2013년 가을 징집과 스포츠·과학 중대), 2013.10.15.

123) Connection e.V., "Substitute payment, denaturalisation, withdrawal and asylum - An overview"(튀르키예 병역 개관), 2024.2.6.

124) Lawspot, "Πρόνοια διακριθέντων αθλητών"(그리스 우수 선수 특전), 2023.10.1. 수정.

125) Thailand Law Online, "Thai Military Service: Exemptions and the Draft Lottery", 2026.10.12. 접속.

126) Thư viện pháp luật, "Vô địch AFF Cup có được miễn nghĩa vụ quân sự không?"(베트남 병역법 해설), 2023. 수정.

127) 앞의 각주 3, 111, 112, 114, 117, 119~126의 자료; Schweizer Armee, "Militärspiel Heer"(군악대 안내문), 2026; Militär Aktuell, "Basisausbildung der Pioniere und Musiker in Bregenz", 2022.8.5.; Yle, "Puolustusvoimissa Ysäri on erilainen loppusota: siellä soi Freestyler", 2016.8.18. 참조. 예술인 칸의 대만과 '없음'은 각국 병역법령·정부 안내(文化部 2026.2.5. 공고와 內政部 2026.3.9. 계획, Bundeswehr 안내문, 러시아 연방법 53-ФЗ 제23-24조, 그리스 법률 3421/2005 제13-29-41조, 태국 병역법 제13-14-27-29조, 베트남 병역법 제4-41조)과 Томская областная филармония(2023), Thư viện pháp luật(2024.5.20.) 참조(서지는 참고문헌 4).

국가	유형	핵심 내용	예술인
핀란드	병행형	347일/165일 복무, 체육휴가 95일/45일	징집병 군악대 (자체 선발시험)
독일	지원형 (자원복무)	엘리트스포츠 자리 약 1,000개	없음 (징병 중단, 군악대 지원복무)
러시아	병행형	스포츠 중대(2013년 창설), 12개월	없음 (징집병의 군 양상불 복무)
싱가포르	연기형 (극히 제한)	장기 연기 3명, 연기 후 반드시 복무	해당 제도 없음
튀르키예	연기형	35세까지 연기, 유료 단기복무는 전 국민 대상	예술인도 35세까지 연기
그리스	없음	명예휴가 최대 30일, 예비역 장교 지위	없음 (명예휴가 추가는 운동선수만 해당)
태국·베트남	없음	태국: 면제·연기 사유에 선수 조항 없음. 베트남: 해설상 대회 우승은 면제·연기 사유 아님	없음 (병역법에 예술인 조항 없음)

※ 공식 법령·정부 안내·현지 보도로 확인한 범위. '없음'은 해당국 병역법령·정부 안내에 예술인 면제·연기 조항이 없다는 뜻. 기초군사훈련 기간(3주 또는 4주)은 자료에 따라 수치가 엇갈려 표에서 제외.

3. 시사점

□ 보상은 '복무 안에서', 메달은 '자격'이지 '면제'가 아니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점은 세 가지다. 첫째,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의 기량을 지키려는 목적은 어느 나라나 같지만, 그 수단은 복무 면제가 아니라 복무 안에서 훈련·대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루 최대 6시간 부대 활동 상한, 스위스의 연 130일, 핀란드의 95일 휴가가 그러한 장치다. 둘째, 혜택에는 의무가 따른다. 대만은 12일 훈련의 대가로 5년간의 관리와 불이행 시 현역 복무를 요구하고, 싱가포르는 특권을 남용하면 즉시 박탈한다. 셋째, 예술인을 운동선수와 같은 틀로 다루는 나라(이스라엘·튀르키예)는 있지만, 콩쿠르 입상을 이유로 면제에 가까운 처우를 하는 나라는 없었다. 수상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대만도 6개월 대체복무를 시키며, 나머지 나라는 군악대 등 복무 안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게 하거나 예술인 조항을 아예 두지 않는다. 한국의 현업 복귀율 자료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진이 2003~2005년 등록 남자선수 17,418명을 2018년까지 추적한 결과, 현업 복귀율은 일반 현역병 12.49%, 국군체육부대 78.91%, 경찰청 체육단 76.55%, 사회복무요원 71.43%였다.¹²⁸⁾ 선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면제가 아니라 복무 형태라는 의미다.

128) 이운·우승석·박소영, 「엘리트 남성선수의 군복무별 현업복귀율과 선수경력 비교 분석」, 『체육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2020, 593~602쪽.

V. 온라인 여론 분석

1. 분석 자료

본 보고서는 검색량, 온라인 문서, 댓글의 세 층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온라인 관심과 반응을 분석했다.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로 2016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월간 검색량과 2026년 9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일간 검색량을 살펴보고,¹²⁹⁾ 썸트렌드 클라우드로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병역특례'·'군면제'·'예술체육요원' 세 키워드의 채널별 언급량, 시기별 연관어, 감성어를 수집했다.¹³⁰⁾

댓글은 네이버뉴스, 유튜브, 커뮤니티의 세 경로에서 수집했다. 네이버뉴스는 썸트렌드 클라우드의 원문 수집 기능으로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게시된 관련 기사 1,466건의 댓글 107,778건을 받은 뒤, 제목에 병역·아시안게임·대표팀 등 주제어가 없는 기사를 걸러 내고 1,267건 기사의 댓글 102,075건을 분석했다.¹³¹⁾ 유튜브는 9월 28일부터 10월 8일 사이 게시된 뉴스·분석 영상 28건의 댓글 97,197건을 영상별로 모두 수집했고,¹³²⁾ 커뮤니티는 에펠큐리아 16,400건, 엠엘비파크 3,402건, 클리앙 1,558건(관련 게시글의 댓글)을 모았다.¹³³⁾ 다섯 플랫폼의 댓글 220,632건은 표본 추출 없이 전부 판독했다. 판독은 댓글이 제도에 대해 취하는 입장(폐지·축소, 유지·보완, 입장없음)과 댓글이 다루는 주제(선수 태도, 소급 적용, 형평성·공정, BTS·대중문화 등 14개)를 같은 규칙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커뮤니티 댓글에는 비꼼과 욕설도 문맥에 따라 입장으로 읽는 '중립 최소화' 원칙을 적용했다. 이하에서 '전체 댓글 기준'은 판독한 모든 댓글을, '유효 댓글 기준'은 입장없음을 제외한 댓글을 분모로 한 비율이다.

[표 8] 빅데이터 분석 자료

자료	출처	기간	규모	분석 내용
검색량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2016.1.~2026.10. (월) 2026.9.15.~10.11. (일)	검색어 묶음 4개 (병역특례·군면제, 아시안게임 병역, 병역특례 폐지, BTS 병역)	관심 시점, 10년 비교
온라인 문서	썸트렌드 클라우드 (10개 채널)	2026.9.1.~10.11.	'병역특례' 24,057건, '군면제' 27,083건, '예술체육요원' 4,413건	채널별 언급량, 시기별 연관어, 감성어

129)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월·일 단위 검색량 상대지수), 2026.10.12. 조회.

130) 썸트렌드 클라우드(Sometrend Cloud) 간편 분석(언급량·연관어·감성어·원문), 분석 기간 2026.9.1.~10.11., 2026.10.12. 조회.

131) 네이버뉴스 기사 1,466건의 댓글 원문(기사 게시 2026.9.19.~10.11.), 썸트렌드 클라우드 원문 수집, 2026.10.12. 수집.

132) 유튜브 뉴스·분석 영상 28건의 댓글 원문(2026.9.28.~10.8. 게시), 2026.10.12. 수집.

133) 에펠큐리아·엠엘비파크·클리앙 게시글·댓글 원문(게시일 2026.9.15.~10.11.), 2026.10.12. 수집.

자료	출처	기간	규모	분석 내용
네이버뉴스 댓글	썸트렌드 클라우드 원문 수집	2026.9.19.~10.11. 게시 기사	기사 1,267건, 댓글 102,075건 (공감 440,461회, 비공감 48,832회)	입장·주제 전수 판독, 공감·비공감 비교
유튜브 댓글	뉴스·분석 영상 28건	2026.9.28.~10.8. 게시 영상	댓글 97,197건 (표시 댓글 수의 95.1%), 좋아요 746,081회	입장·주제 전수 판독, 국면별 비교
커뮤니티 댓글	에펨코리아· 엠엘비파크·클리앙	2026.9.15.~10.11.	댓글 21,360건 (에펨코리아 16,400, 엠엘비파크 3,402, 클리앙 1,558)	입장·주제 전수 판독, 플랫폼별 비교

※ 검색량은 상대지수(조회 조건 내 최댓값=100)이며 절대 검색량이 아님. 썸트렌드 '병역특례'의 블로그·티스토리 문서는 대부분 산업기능요원 광고성 문서여서 채널별 분석에서 제외. 유튜브 좋아요 수는 유튜브가 표시하는 근삿값(예: '7.6천'). 에펨코리아는 주제와 무관한 게시글 1건(댓글 842건)과 베스트 댓글 중복 노출분 111건을 제외. 클리앙은 관련 게시글의 댓글만 집계.

2. 검색 관심도: 10년 만에 돌아온 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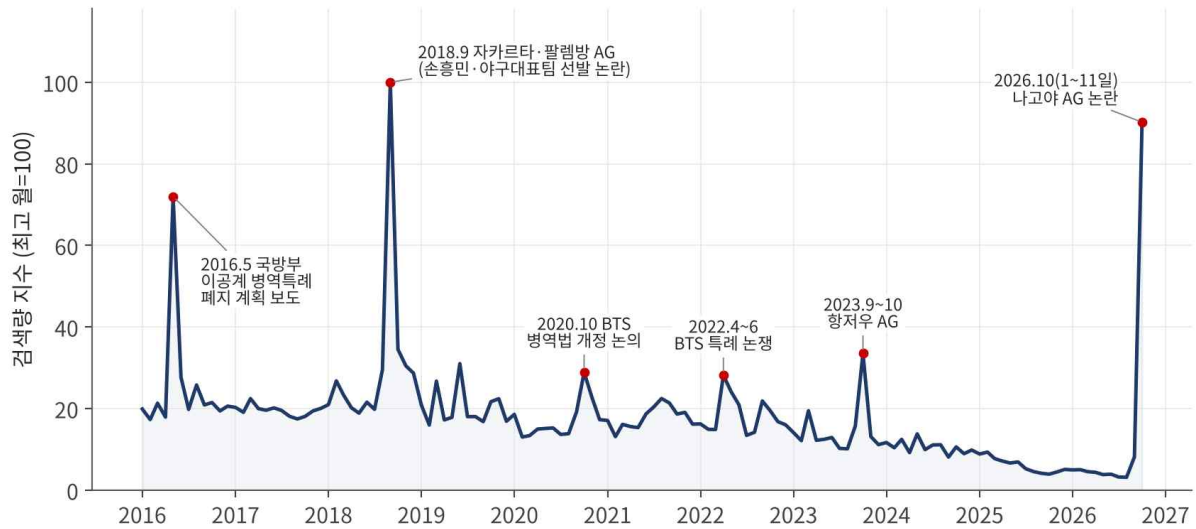
□ 2026년 10월 검색량, 11일 만에 2018년 9월 정점의 90.2% 기록

'병역특례'와 '군면제' 등을 묶은 검색량 지수의 10년 추이에서 정점은 2018년 9월(100)이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이 포함된 축구 대표팀과 야구 대표팀의 선발 논란이 겹쳤던 시기다. 2016년 5월(72.0)은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병역 특례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보도된 시점으로,¹³⁴⁾ 예술·체육 분야와는 맥락이 다른 급등이다. 이후 2020년 10월 BTS 병역법 개정 논의(28.9), 2022년 4월 BTS 특례 논쟁(28.2),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33.6)이 작은 봉우리를 만들었다. 2024년 이후에는 월 10 안팎으로 가라앉아 2025년 연평균은 6.2, 2026년 8월은 3.2에 그쳤다.

2026년 10월은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의 집계만으로 90.2를 기록해 한 달 전(9월 8.2)의 11배, 두 달 전의 28배로 뛰었다. 월말까지 집계하면 2018년 9월의 정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8년 전 논란이 '누가 특례를 받느냐'(선발)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특례 자체를 둘 것이냐'(존폐)의 문제라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변화는 일간 지수에서 확인된다.

134) 국민일보,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 전면 폐지」, 2016.5.16.

[그림 1] '병역특례' 관련 검색량 지수 월별 추이(2016.1.~20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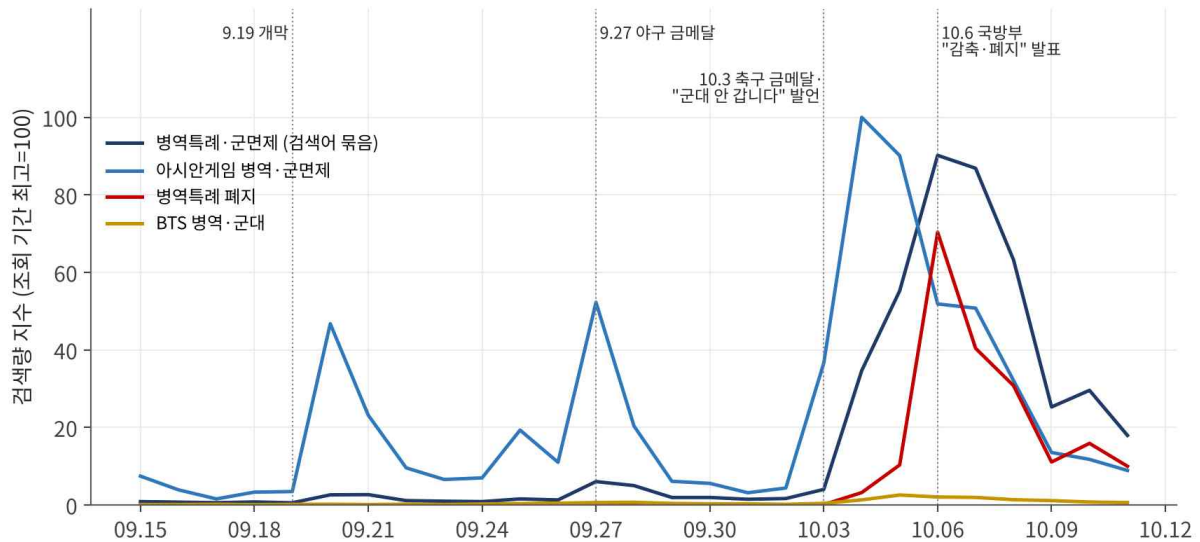
※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검색어 묶음: 병역특례·병역 특례·군면제·군 면제·병역혜택·병역 혜택·예술체육요원·예술 체육요원. 조회 기간 최댓값(2018년 9월)=100. 2026년 10월은 1~11일 부분 집계.

□ 일간 지수: 야구 금메달 뒤엔 '아시안게임 병역', 축구 발언 뒤엔 '병역특례 폐지'

일간 지수(2026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조회 조건의 최댓값=100)를 보면 관심의 성격이 단계적으로 바뀌었다. 9월 20일과 9월 27일 야구 결승 전후에는 '아시안게임 병역·군면제' 묶음이 각각 46.7과 52.3으로 올랐지만 '병역특례·군면제' 묶음은 6.0에 머물렀다. 누가 면제를 받는지를 찾아본 것이다. 10월 3일 축구 결승과 발언 논란 이후 '아시안게임 병역'은 10월 4일 100으로 정점을 찍었고, '병역특례·군면제'는 10월 4일 34.7, 10월 5일 55.2, 10월 6일 90.2로 뒤따라 올랐다. '병역특례 폐지' 묶음은 10월 5일까지 10.3 이하였다가 국방부 발표가 있던 10월 6일 70.4로 뛰었다. 관심이 '누가 받나'에서 '제도를 없애나'로 옮겨 간 흐름이 검색어에 그대로 남은 것이다.

'BTS 병역·군대' 묶음은 같은 기간 최고치가 10월 5일 2.6에 그쳤다. BTS는 검색 대상이 아니라 댓글과 발언 속에서 비교의 논거로만 소환됐다는 뜻이며, 6절과 7절의 댓글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 2] 검색어 묶음별 일간 검색량 지수(2026.9.15~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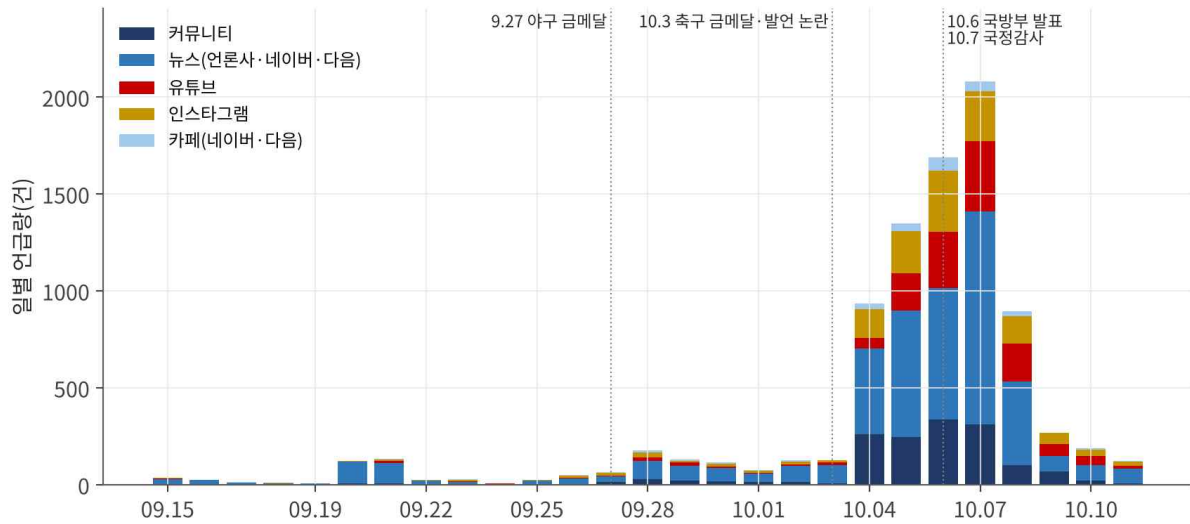
※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2026.4.1.~10.11. 조회 조건의 최댓값('아시안게임 병역' 10월 4일) =100. '병역특례·군면제' 묶음은 [그림 1]과 같고, '아시안게임 병역'은 아시안게임 병역·군면제·병역특례·병역혜택·면제 관련 6개, '병역특례 폐지'는 폐지 관련 검색어, 'BTS 병역'은 BTS·방탄소년단의 병역·군대·입대·군면제 관련 13개 검색어.

3. 언급량과 담론의 전개

□ 10월 3~8일 옛새가 9월 19일 이후 언급량의 80.8%, 뉴스가 절반

썸트렌드로 수집한 '병역특례' 문서 가운데 블로그·티스토리를 제외한 커뮤니티·뉴스·유튜브·인스타그램·카페 문서는 대회 개막일인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8,758건이었다. 개막 첫 주(9월 19~26일)에는 하루 평균 51건이었고, 야구 결승 다음 날인 9월 28일에도 179건에 그쳤다. 축구 결승 다음 날인 10월 4일 934건으로 뛴 뒤 10월 5일 1,349건, 10월 6일 1,688건을 거쳐 국정감사가 열린 10월 7일 2,082건으로 정점에 이르렀고, 10월 8일 896건, 10월 9일 269건으로 가라앉았다.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옛새의 언급량 7,076건은 전체의 80.8%에 해당한다. 채널별로는 뉴스(언론사·네이버·다음)가 4,336건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커뮤니티 1,503건, 인스타그램 1,337건, 유튜브 1,305건, 카페 277건 순이었다. 커뮤니티는 10월 6일(338건)에, 뉴스와 유튜브는 국정감사 당일인 10월 7일(각 1,101건, 360건)에 가장 많았다.

[그림 3] '병역특례' 채널별 일간 언급량(2026.9.15~10.11.)



□ 연관어: '야구·일본'에서 '축구·발언·군대'로, 다시 '국방부·폐지·예술'로

시기별 연관어는 담론의 중심이 옮겨 간 경로를 보여준다.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야구', '일본', '경기', '올림픽', '항저우'가 상위에 있었고 '프로선수'와 'BTS'가 새로 떠올랐다.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에 이긴 야구 대표팀의 특례가 적절한지를 항저우 대회의 전례와 비교하는 논의였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축구', '군대', '축구대표팀', '발언', '이기혁', '주장'이 상위를 차지했고 'SNS', '양민혁', '정치권', '언행', '안철수', '청년'이 급상승했다. 선수의 언행과 정치권의 반응이 논의의 축이었다. 국방부 발표 이후인 10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예술', '국방부', '폐지', '국회', '의원', '국민의힘'이 상위에 오르고 '강신철', '국방부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급상승했다. 논의가 선수에서 제도와 정부로 넘어간 것이다. 특히 '예술'이 이 시기 연관어 1위에 오른 것은 체육 논란이 예술요원 문제로 번졌음을 뜻한다. 10월 9일 이후에는 '올림픽'과 '언행'이 상위에 남아 '올림픽만 인정'이라는 대안 논의가 이어졌다.

[표 9] 시기별 '병역특례' 연관어(블로그 제외 채널 합산)

시기	빈도 상위 연관어	급상승 연관어
9.27~10.2. (야구 금메달)	야구, 일본, 경기, 올림픽, 항저우, 종목, 예술, 결승전, 스포츠, 라운드	사회(인), 프로선수, BTS, 국민, 국민의힘, 프로리그
10.3~10.5. (축구 금발언 논란)	축구, 군대, 축구대표팀, 일본, 경기, 발언, 이기혁, 국민, 의원, 주장	SNS, 양민혁, 정치권, 언행, 안철수, 청년
10.6~10.8. (국방부 발표·국정감사)	예술, 국방부, 축구, 군대, 폐지, 축구대표팀, 국회, 의원, 발언, 국민의힘	강신철, 국방부대변인,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기	빈도 상위 연관어	급상승 연관어
10.9.~10.11. (후속 논의)	축구, 군대, 예술, 국방부, 폐지, 축구대표팀, 국민, 국회, 올림픽, 언행	국내, 외국, 순위, 한국여자

※ 커뮤니티·유튜브·언론사 뉴스·네이버뉴스 채널의 일별 연관어 빈도를 시기별로 합산. '병역', '특례', '선수', '대회', '금메달', '아시안게임' 등 모든 시기에 공통으로 나타난 단어는 제외. 급상승은 직전 시기 대비 증가 배율 기준(빈도 10 이상). 9월 19~26일의 '병역특례' 연관어는 삼성전자·LG 등 기업 전문연구요원 관련 단어가 상위를 차지해 표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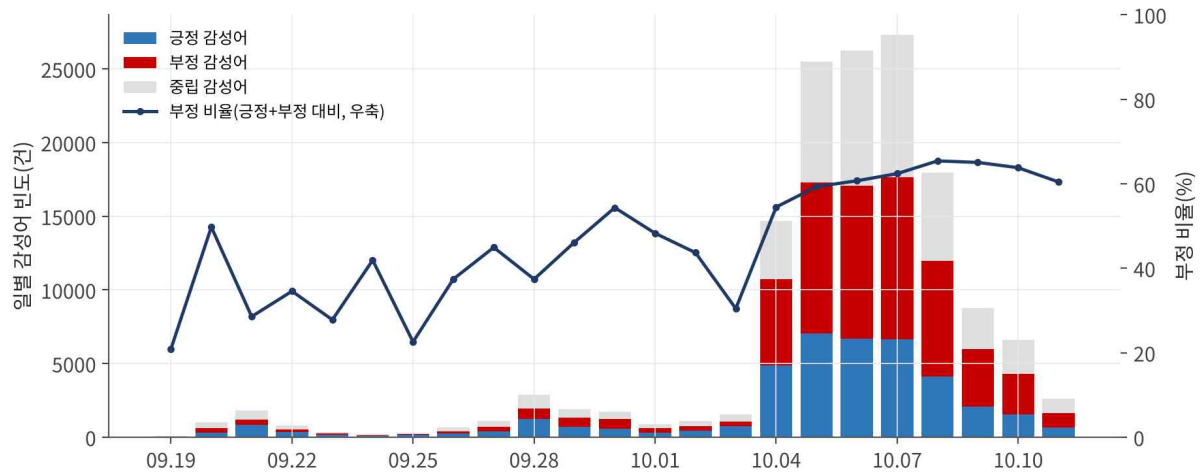
4. 감성의 흐름

□ 부정 감성어 비율 34.3%에서 63.9%로, 10월 4일 이후 역전

썸트렌드의 감성어 분석에서 '병역특례' 문서의 긍정·부정 감성어 빈도는 10월 4일을 경계로 역전됐다. 개막 첫 주(9월 19~26일)에는 긍정 2,212건, 부정 1,156건으로 긍정이 많았고, 부정 비율(긍정+부정 대비)은 34.3%였다. 이 비율은 야구 결승 이후(9월 27일~10월 2일) 44.9%로 올랐고, 축구 발언 이후(10월 3~5일) 56.5%, 국방부 발표 이후(10월 6~8일) 62.5%, 10월 9~11일 63.9%로 계속 높아졌다. 일별로는 10월 8일 65.4%가 가장 높았다. '군면제' 문서도 같은 흐름을 보여 39.9%에서 66.2%로 올랐다.

감성어의 내용을 보면 흐름이 더 분명하다. 부정 감성어 상위는 '논란'(10,073), '비판'(4,531), '가지않다'(4,360), '경솔한'(2,223), '번지다'(2,151), '특혜'(1,095), '유감'(952), '부적절한'(763), '분노'(623)로, 선수 언행에 대한 비판과 특혜라는 규정이 핵심이다. 긍정 감성어 상위인 '우승'(2,795), '기쁨'(1,815), '혜택 받다'(1,767), '축하'(682)는 제도가 아니라 금메달 자체에 대한 반응이다. 제도에 우호적인 어휘로 볼 만한 것은 '신성한'(705), '공정하다'(644) 정도인데, 이 역시 "신성한 국방의 의무"처럼 병역 쪽을 가리키는 쓰임이 많다. 긍정 감성어가 특례 제도에 대한 지지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여론은 감성어 비율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비판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4] '병역특례' 문서의 일별 감성어 빈도와 부정 비율(2026.9.19~10.11.)



※ 썬트렌드 클라우드 감성 분석. 막대는 긍정·부정·중립 감성어 빈도(문서 수가 아님), 선은 긍정+부정 대비 부정 비율.

[표 10] '병역특례' 문서의 감성어 상위(2026.9.1~10.11., 전체 채널)

구분	감성어(빈도)
부정	논란(10,073), 비판(4,531), 가지않다(4,360), 경솔한(2,223), 번지다(2,151), 논란되다(1,892), 불거지다(1,263), 특혜(1,095), 유감(952), 사라지다(890), 부적절한(763), 맞지않다(652), 분노(623)
긍정	우승(2,795), 기쁨(1,815), 혜택 받다(1,767), 좋은(1,339), 활용하다(1,091), 진심(1,046), 혜택 주다(991), 기여하다(987), 신성한(705), 축하(682), 공정하다(644)
중립	논의(3,119), 크다(2,881), 논쟁(2,459), 획득하다(1,855), 유지하다(1,841), 다르다(1,538), 중요한(1,405), 필요하다(1,309)

※ 썬트렌드 감성 연관어 분석 결과. 감성 분류는 서비스의 사전 기준을 따르며, '혜택 받다'·'우승'처럼 금메달 자체를 가리키는 긍정어가 많아 제도 지지와 동일시할 수 없음.

5. 댓글 입장: 다섯 플랫폼 모두 폐지·축소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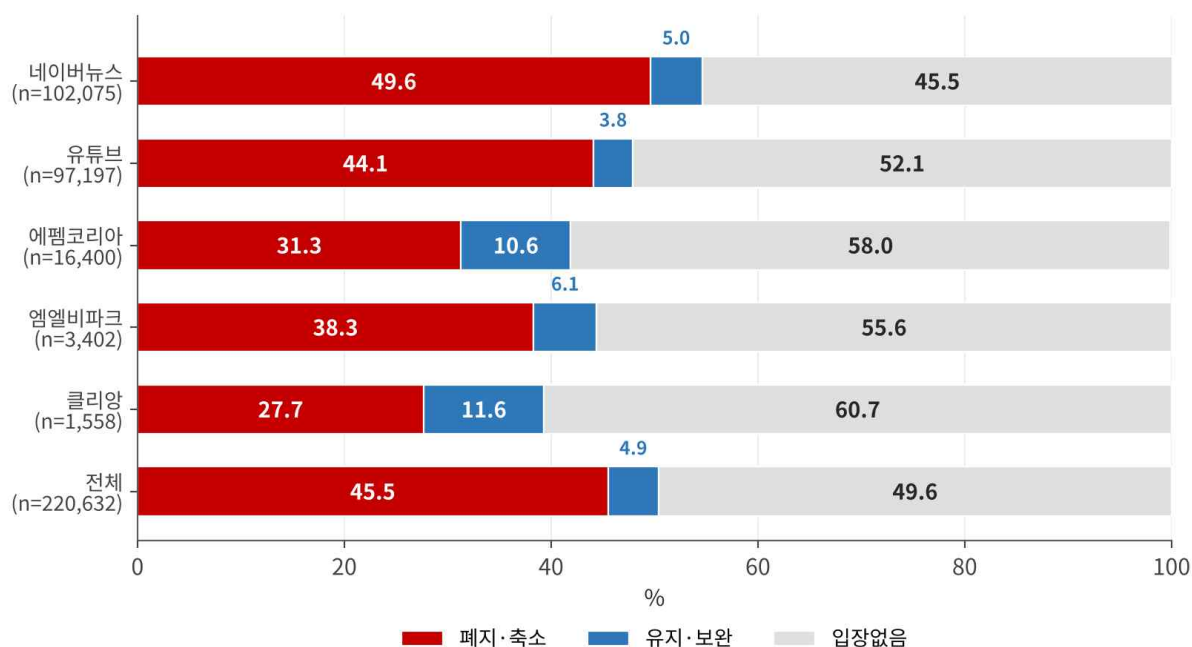
□ 전체 댓글의 45.5%, 유효 댓글의 90.2%가 폐지·축소 의견

다섯 플랫폼의 댓글 220,632건 가운데 폐지·축소는 100,353건(45.5%), 유지·보완은 10,885건(4.9%), 입장없음은 109,394건(49.6%)이었다. 입장없음이 절반에 이른 것은 선수에 대한 조롱, 경기 내용, 정치 공방처럼 제도의 존폐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댓글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체 댓글 기준 폐지·축소 비율은 네이버뉴스 49.6%, 유튜브 44.1%, 엠엘비파크 38.3%, 에펠큐리아 31.3%, 클리앙 27.7% 순이었다. 플랫폼마다 입장없음 비율이 45.5%에서 60.7%까지 달라 이 기준으로는 플랫폼 간 차이가 커 보인다.

입장을 밝힌 유효 댓글만 보면 차이가 줄어든다. 유효 댓글 기준 폐지·축소는 유튜브 92.1%, 네이버뉴스 90.9%, 엠엘비파크 86.3%, 에펠큐리아 74.6%, 클리앙 70.6%로, 모든

플랫폼에서 70%를 넘었다. 두 기준을 함께 보면 여론의 구조가 드러난다. 제도를 직접 언급한 사람 열 명 중 아홉 명이 폐지·축소 쪽이었으나, 커뮤니티에서는 반론이 상대적으로 존재했다. 유효 댓글 기준 유지·보완 비중은 에펨코리아 25.4%, 클리앙 29.4%로 네이버뉴스(9.1%)와 유튜브(7.9%)의 약 세 배였다.

[그림 5] 플랫폼별 댓글 입장 분포(전체 댓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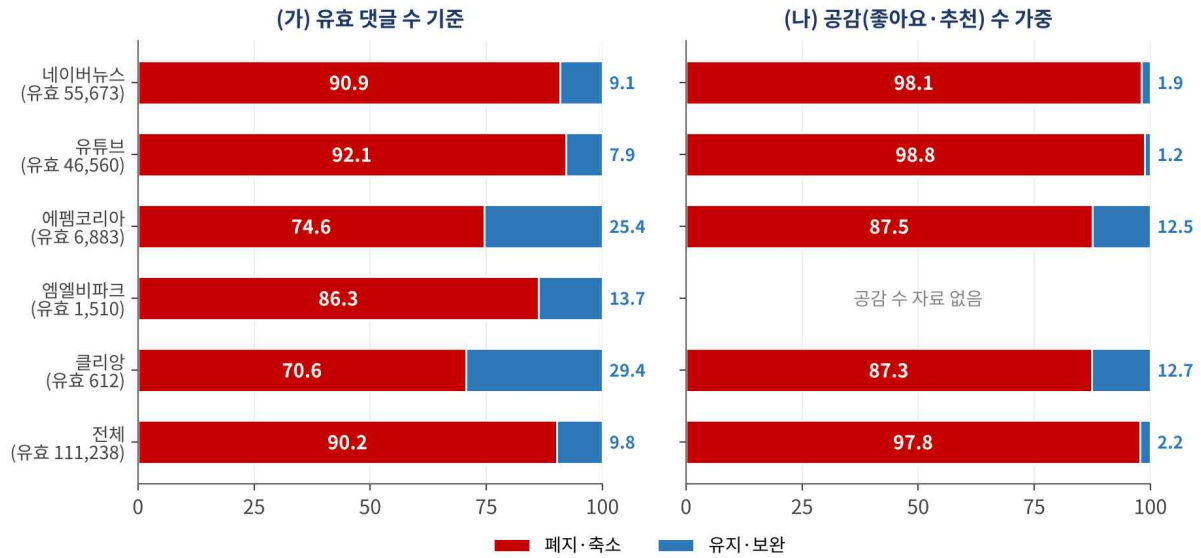
※ 판독한 댓글 전체 대비 비율(%). 네이버뉴스·유튜브·에펨코리아·엠엘비파크·클리앙 모두 수집 댓글 전수 판독

□ 공감 수로 가중하면 97.8%: 유지·보완 댓글은 공감보다 비공감을 더 받아

댓글이 받은 공감(좋아요·추천)을 가중치로 적용하면 쏠림은 더 강해진다. 유효 댓글이 받은 공감 가운데 폐지·축소 댓글의 몫은 유튜브 98.8%, 네이버뉴스 98.1%, 에펨코리아 87.5%, 클리앙 87.3%였고, 네 플랫폼 합계는 97.8%였다(엠엘비파크는 댓글 공감 기능 없음). 유지·보완 댓글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이용자의 지지는 거의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네이버뉴스는 비공감 수도 함께 보여 준다. 폐지·축소 댓글 50,600건은 평균 공감 6.11회, 비공감 0.21회를 받았다. 반면 유지·보완 댓글 5,073건은 평균 공감 1.19회, 비공감 3.12회를 받아 비공감(15,827회)이 공감(6,054회)의 2.6배였다. 입장없음 댓글(평균 공감 2.70회, 비공감 0.48회)과 비교해도 비공감이 공감보다 많은 것은 유지·보완 댓글뿐이었다. 네이버뉴스 이용자들이 제도 유지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그림 6] 플랫폼별 유효 댓글의 입장 비교: 댓글 수 기준과 공감 수 가중



※ 입장없음을 제외한 유효 댓글 대비 비율(%). (나)는 각 댓글이 받은 공감 수(네이버 공감, 유튜브 좋아요, 에펨코리아 추천, 클리앙 공감)로 가중함. 엠엘비파크는 댓글 공감 기능 없음

[표 11] 네이버뉴스 댓글의 입장별 공감·비공감

입장	댓글 수	공감 합계	비공감 합계	평균 공감	평균 비공감	비공감/공감
폐지·축소	50,600	309,325	10,508	6.11	0.21	0.03
유지·보완	5,073	6,054	15,827	1.19	3.12	2.61
입장없음	46,402	125,082	22,497	2.70	0.48	0.18
계	102,075	440,461	48,832	4.32	0.48	0.11

※ 썬트렌드 클라우드 원문 수집 시점(2026년 10월 12일)의 공감·비공감 수. 평균은 댓글 1건당 값.

6. 국면별 변화와 주제: 선수 태도에서 소급 적용과 제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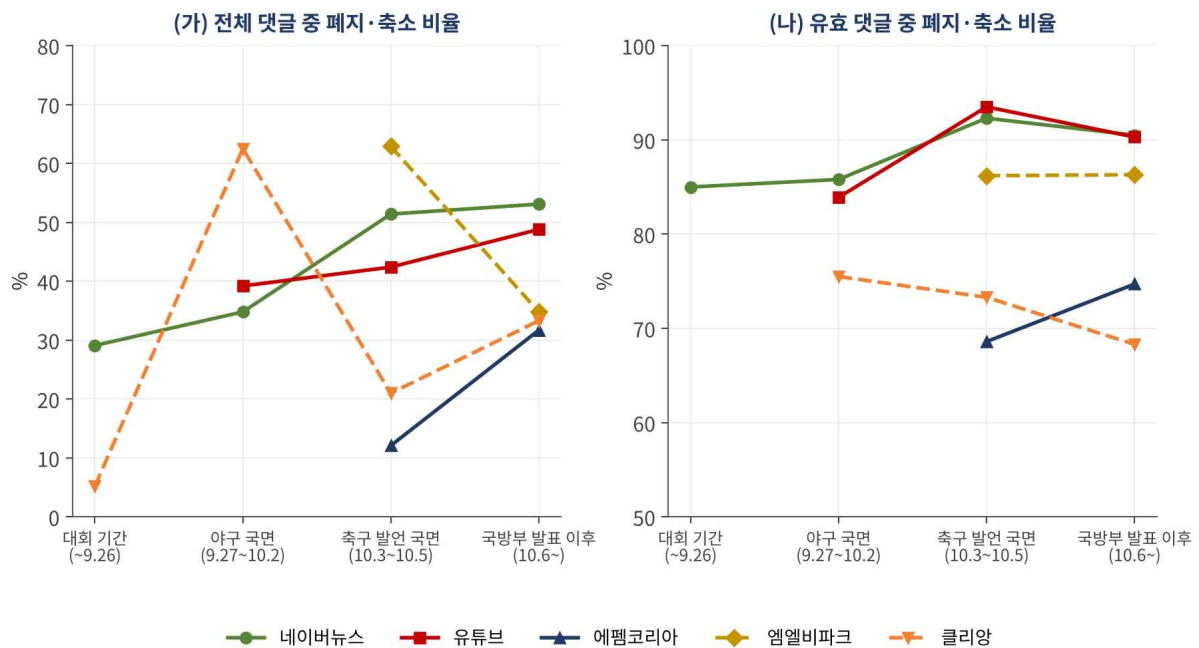
□ 축구 발언 뒤 폐지·축소 급증, 국방부 발표 뒤에도 전체 비중은 증가

국면은 대회 기간(9월 26일까지), 야구 국면(9월 27일~10월 2일), 축구 발언 국면(10월 3~5일), 국방부 발표 이후(10월 6일부터)로 구분했다. 네이버뉴스와 커뮤니티는 댓글 작성일을, 유튜브는 영상 게시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네이버뉴스의 전체 댓글 기준 폐지·축소 비율은 대회 기간 29.1%, 야구 국면 34.8%에서 축구 발언 국면 51.4%로 크게 뛰었고, 국방부 발표 이후에는 53.1%로 더 올랐다. 유튜브도 39.2%, 42.4%, 48.8%로 꾸준히 상승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의 존폐를 직접 언급하는 댓글이 늘어난 것이다.

유효 댓글 기준으로는 축구 발언 국면이 정점이었다. 네이버뉴스는 85.0%, 85.8%, 92.3%를 거쳐 국방부 발표 이후 90.5%로, 유튜브는 83.9%, 93.5%를 거쳐 90.3%로 나타났다.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뒤 유지·보완 비중이 1.8~3.2%p 늘어난 셈이다.

커뮤니티는 국면별 댓글 수가 고르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클리앙은 야구 국면 75.5%, 축구 발언 국면 73.3%, 국방부 발표 이후 68.3%로 낮아졌고, 엠엘비파크는 86.2%와 86.3%로 거의 같았다. 에펠큐리아는 댓글 대부분(16,080건)이 국방부 발표 이후에 달렸으며, 이 시기 유효 댓글 기준 폐지·축소 비율은 74.8%였다.

[그림 7] 국면별 폐지·축소 비율: 전체 댓글 기준과 유효 댓글 기준



※ 네이버뉴스·커뮤니티는 댓글 작성일, 유튜브는 영상 게시일(한국 시각) 기준. 국면별 댓글이 100건 미만 (유효 기준은 유효 댓글 50건 미만)인 경우는 표시하지 않음

□ 주제: 선수 태도가 가장 많고, 국방부 발표 뒤 소급 적용·정치권 비중이 커져

주제별로는 모든 플랫폼에서 선수 태도가 가장 많았다. 이 주제를 다룬 댓글 비율은 유튜브 40.8%, 네이버뉴스 29.4%, 에펠큐리아 17.7%, 클리앙 16.2%, 엠엘비파크 15.5%였다. 소급 적용은 유튜브 16.9%, 에펠큐리아 13.1%, 네이버뉴스 12.5%, 엠엘비파크 8.2%, 클리앙 2.2%였고, 정치권·정부는 네이버뉴스(14.6%)와 에펠큐리아(13.5%)에서 높았다. 예술요원·콩쿠르는 에펠큐리아 10.2%, 엠엘비파크 6.2%였으나, 네이버뉴스와 유튜브에서는 1%에 미치지 못했다.

국면에 따라 주된 주제도 달라졌다. 야구 국면에는 야구·축구 단체종목이 주된 주제였다 (유튜브 41.3%, 네이버뉴스 26.3%). 축구 발언 국면에는 선수 태도가 유튜브 45.3%, 네이버뉴스 35.3%로 치솟았다. 국방부 발표 이후에는 선수 태도가 유튜브 33.8%, 네이버뉴스 29.8%로 줄어든 반면, 소급 적용은 유튜브 13.9%에서 25.4%로, 네이버뉴스 12.5%에서 16.5%로 늘었다. 네이버뉴스에서는 정치권·정부 역시 13.4%에서 18.4%로 증가했다.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히자 댓글의 초점이 선수 개인에서 '이번 선수부터 적용하라'는 요구와 정치권의 대응으로 옮겨 간 것이다.

주제에 따라 입장의 쏠림 정도도 달랐다. 유효 댓글 기준 폐지·축소 비율은 국위선양 회의 99.4%, 올림픽만 인정 99.3%, 소급 적용 98.9%, 형평성·공정 98.0%, BTS·대중문화 95.8%로 매우 높았다. 반면 상무·대체복무를 언급한 댓글에서는 유지·보완이 21.8%, 정치권·정부를 다룬 댓글에서는 18.7%였다. 반론은 주로 복무 중 병행 같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하는 댓글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그림 8] 플랫폼별 댓글 주제 분포



※ 각 플랫폼의 판독 댓글 가운데 해당 주제를 다룬 댓글의 비율(%). 한 댓글이 여러 주제를 다룰 수 있어 합계는 100%가 아님.

7. 플랫폼별 특징

□ 네이버뉴스: 10월 4~7일에 73.6% 집중, 정치권 공방이 가장 많은 플랫폼

네이버뉴스 댓글 102,075건의 73.6%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달렸다.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10월 4일 연합뉴스의 「[아시안게임] "군대 안 갑니다"…금메달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1,938건), 같은 날 조선일보의 안철수 의원 발언 기사(1,866건), 10월 5일 MBC의 「금메달 뒤 "군대 안 갑니다" 논란…여야 "병역특례 손봐야"」(1,355건)였다. 정치권·정부를 다룬 댓글 비율(14.6%)이 다섯 플랫폼 중 가장 높아, 제도

논쟁이 정당 간 공방과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났다.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은 "다 전면 폐지하고 이번부터 소급적용 하라!"(공감 1,902), "아시안게임, 올림픽 병역면제 없애시다. 스포츠로 국위선양 되는 시대가 아니예요."(1,498)처럼 폐지와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유지·보완 댓글 중 공감이 가장 많은 댓글(655)은 대회 한 번의 우승 대신 국제대회 입상 포인트를 쌓아 혜택을 주자는 누적점수제 제안이었다.

□ 유튜브: 선수 태도에 대한 분노와 소급 적용 요구

유튜브 뉴스 영상 28건에 달린 댓글 97,197건에서는 선수 태도에 대한 반응이 가장 두드러졌다. MBC의 10월 4일 영상 한 건에만 10,884건이 달렸고, JTBC·SBS 영상도 각각 7,000~9,000건에 이르렀다.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폐지·축소 댓글은 "이번 금메달부터 병역면제 박탈해라"(7,600), "폐지할거면 이번 아시안게임 부터 적용"(7,500), "군면제 취소하고 입대시켜버려라"(6,400), "시대가 변했다. 이런걸로 국위선양 되지 않는다. 폐지해야한다."(5,500)였다. 유지·보완 쪽에서는 "법개정해서 품위위반행위시 특례 반환 만들자"(1,700), "아시안게임 메달따면 상무 우선 입대권 줘라"(376), "비인기 종목은 무슨 날벼락이냐"(138)처럼 제도를 없애기보다 고치자는 주장과 비인기 종목에 대한 우려가 공감을 얻었다.

[표 12] 댓글 수 상위 유튜브 영상

게시일	채널	제목(일부)	조회수	수집 댓글
10.4.	MBC뉴스	"메달 안중요"? 전역모 '빠딱'.. 민심 추락에 고개 '푹'	2,102,888	10,884
10.5.	JTBC News	단 몇시간 사이 '불' 질렸다..36년 '병역 특례' 폐지 위기	1,546,220	8,947
10.4.	SBS 뉴스	면제가 '상'이면 입대는 '벌'인가.."특례 재고해야"	1,239,435	8,689
10.6.	JTBC News	"군 면제만 봤다" 이제 못 보나?...국방부 "감축·폐지 추진"	1,511,456	7,012
10.4.	MBC뉴스	'빠딱한 전역모'에 "군면제만 생각"..결국 줄줄이 사과	1,047,724	6,454
10.7.	채널A News	"이번 금메달부터 없애자"...AG 병역특례 파장	1,547,056	5,419
10.5.	JTBC News	"BTS도 국방 의무 지켜"...대통령 국방정책 특보 "재정비 필요"	1,290,133	5,199
10.8.	연합뉴스	"군대 안 간다" 웃고 떠들다...'병역특례' 최대 위기	1,122,837	3,963
10.4.	새벽의 축구 전문가	"병역면제를 위해 뛰었다" 논란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인터뷰	526,489	3,491
10.4.	JTBC News	"군대 안 갑니다" 전역모 쓰고 '인증샷'...병역 혜택 논란	528,613	3,460

※ 게시일은 한국 시각, 조회수는 2026년 10월 12일 수집 시점 기준. 영상별 수집 댓글은 유튜브가 표시하는 댓글 수의 72.6~100%. 28개 영상 전체는 조회수 합계 2,006만 회, 댓글 97,197건.

□ 커뮤니티: 폐지론 우세 속 반론과 예술요원 비판

커뮤니티는 폐지·축소가 우세한 가운데 반론도 가장 많이 나온 플랫폼이었다. 축구 팬이 많은 에펠큐리아에서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은 "혜택을 없어지게 만든 사람이 혜택은 받는다?? 이걸 아니긴해"(추천 2,526)였고, "예술 콩쿠르를 더 조져야할거같은디"(2,050)처럼 국정 감사에서 나온 '무늬만 국제대회' 보도를 계기로 예술요원을 겨냥한 댓글도 많았다. 한편 폐지론 자체를 비판하는 댓글 비율(5.2%)이 다섯 플랫폼 중 가장 높았고, 유지·보완 댓글 중 추천이 가장 많은 댓글(678)은 이번 결정의 피해가 훈련장조차 부족한 비인기 종목 남자 선수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었다. 클리앙은 형평성·공정(10.7%)과 상무·대체복무(6.1%)를 다룬 비율이 높았고, "4년마다 열리는거에 40명 정도가 금메달 따서 군면제 됩니다"라며 연평균 10명 안팎의 면제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반론도 나왔다. 야구 팬이 많은 엠엘비파크는 유효 댓글 기준 폐지·축소가 86.3%로 커뮤니티 가운데 가장 높았다.

□ BTS: 8,337건에서 언급, 유효 댓글의 96.0%가 폐지의 논거

BTS(방탄소년단)를 언급한 댓글은 다섯 플랫폼 합계 8,337건으로 전체 댓글의 3.8%였다. 네이버뉴스 3,696건, 유튜브 4,256건, 에펠큐리아 283건, 엠엘비파크 66건, 클리앙 36건이다. 이 가운데 입장을 밝힌 댓글의 96.0%가 폐지·축소였고, 유지·보완으로 분류된 댓글은 300건이었다. 유효 댓글 기준 폐지·축소 비율은 네이버뉴스 96.4%, 유튜브 96.5%, 엠엘비파크 88.3%, 에펠큐리아 86.9%, 클리앙 76.5%였다. 2022년 BTS 대체복무 논쟁 때는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지만, 2026년 댓글에서 BTS는 "BTS도 다 군대 갔다 왔는데"라는 폐지의 논거로 쓰였다.

[표 13] 플랫폼별 댓글 입장과 주요 주제

플랫폼	판독 댓글	폐지·축소	유지·보완	입장 없음	유효 기준 폐지·축소	공감 가중 폐지·축소	상위 3개 주제(%)
네이버뉴스	102,075	49.6%	5.0%	45.5%	90.9%	98.1%	선수태도 29.4, 정치권·정부 14.6, 소급적용 12.5
유튜브	97,197	44.1%	3.8%	52.1%	92.1%	98.8%	선수태도 40.8, 소급적용 16.9, 야구·축구 6.6
에펠큐리아	16,400	31.3%	10.6%	58.0%	74.6%	87.5%	선수태도 17.7, 정치권·정부 13.5, 소급적용 13.1
엠엘비파크	3,402	38.3%	6.1%	55.6%	86.3%	-	선수태도 15.5, 정치권·정부 10.7, 소급적용 8.2
클리앙	1,558	27.7%	11.6%	60.7%	70.6%	87.3%	선수태도 16.2, 형평성·공정 10.7, 야구·축구 8.7
전체	220,632	45.5%	4.9%	49.6%	90.2%	97.8%	-

※ 유효 기준은 입장없음을 뺀 댓글 대비 비율, 공감 가중은 유효 댓글이 받은 공감 수 대비 폐지·축소 댓글 공감의 비율. 엠엘비파크는 공감 수 미수집. 판독 규칙은 1절 참조.

8. 소결

온라인 여론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관심의 규모가 2018년 이후 최대였다. 네이버 검색량 지수는 11일 만에 2018년 9월 정점의 90.2%에 이르렀고, 본 보고서가 수집한 네이버뉴스·유튜브·커뮤니티 댓글만 220,632건이었다. 둘째, 관심의 성격이 '누가 받나'에서 '없앨 것인가'로 바뀌었다. 야구 금메달 때는 '아시안게임 병역' 검색이, 국방부 발표 뒤에는 '병역특례 폐지' 검색이 정점을 찍었다. 셋째, 댓글 전수 판독 결과 전체 댓글의 45.5%, 유효 댓글의 90.2%가 폐지·축소였고 공감 수로 가중하면 97.8%였다. 네이버 뉴스에서 유지·보완 댓글은 공감보다 비공감을 2.6배 더 받았다. 넷째, 분노의 출발점은 선수의 태도였지만 종착점은 제도였다. 국방부 발표 뒤 선수 태도를 다룬 댓글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소급 적용 요구가 유튜브에서 13.9%에서 25.4%로 늘었으며, 전체 댓글 중 폐지·축소 비율도 계속 올랐다. 다섯째, BTS는 검색 대상이 아니라 인용 대상이었다. BTS를 언급한 댓글 8,337건 중 입장을 밝힌 댓글의 96.0%가 폐지·축소였다. 반론은 소수였지만 에펠타와 클리앙에서는 유효 댓글의 25~29%가 유지·보완이었고, 상무 입대 우선권, 품위 위반 시 특례 반환, 누적점수제, 비인기 종목 보호처럼 제도를 고쳐 쓰자는 구체적 대안이 나왔다. 댓글 작성자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VI. 정책 대안

본 보고서는 I~V장의 제도 분석, 해외 사례, 온라인 여론 분석을 토대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다. 2026년 10월 현재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안은 네 갈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를, 주호영 의원안은 아시안게임 1위 편입 삭제와 편입 요건의 법률 규정을, 병무청은 예술 분야의 국제대회 1위 상향과 국내대회 편입 인원 축소를, 차규근 의원안은 복무 중 소득에 대한 기여금 부과를 제안했고, 국군체육부대 확대는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함께 거론한다. 본 보고서는 이들을 출발점으로 삼되 다섯 가지 점에서 더 나아간다. 폐지 연도를 법률에 못 박고, 예술요원은 즉시 편입을 중단하며, 국군체육부대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메달리스트의 복무 경로로 재설계하고, 복무관리는 공개와 즉시 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겸직은 수익을 환원받는 대신 금지한다.

1. 폐지의 원칙: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시한을 정한 폐지'

□ 폐지 연도를 법률에 명시: 2028년 LA 올림픽이 마지막 편입 대회

정부가 밝힌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에는 시점이 없다. 병무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폐지 목표 연도를 정하고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이 맞다"고 답했고,¹³⁵⁾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도 목표 연도를 정해 단계별로 축소하자고 했지만,¹³⁶⁾ 그 연도를 누가 언제 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9년에는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던 정부 TF가 '유지'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병무청이 보충역 제도의 '제로 베이스' 검토를 예고하고 관계부처 TF를 꾸려 연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발표된 개선안은 없었다.¹³⁷⁾ 시점 없는 축소 약속이 대회 성적과 여론에 따라 되풀이돼 온 것이 이 제도 53년의 역사다.

본 보고서는 폐지 연도를 병무청의 정책연구용역이나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아니라 법률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 LA 올림픽을 마지막 편입 인정 대회로 하고 2029년 1월 1일부터 신규 편입을 종료하는 일몰 조항을 병역법 부칙에 두는 방안이다. 2026년 아시안게임 편입자의 34개월 복무가 끝나는 2029~2030년에 제도는 자연히 소멸하고, 지금 성장기에 있는 선수에게는 2년 이상의 예고 기간이 주어진다. 2040년 20세 남성 인구가 13만~15만 명대로 줄어드는 시점을 기다릴 이유도 없다. 폐지와 함께 병역법 제33조의7의 위임 조항 자체를 삭제해, 2002년과 2006년의 월드컵·WBC 조항처럼 시행령 개정만으로 특례를 되살리는 일이 다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5) 대전일보, 「병무청장 "AG 선수들 연행 유감... 특례 개선요구 무겁게 받아들여"」, 2026.10.12.

136) 경향신문, 「"종목 제한 등 단계적 축소"...여, 병역 특례 제도 손질 착수」, 2026.10.7.

137) 스포츠조선, 「"파리올림픽 앞두고..." 병무청장, 체육요원 병역특례 전면재검토 발언에 발칵 뒤집어진 체육계」, 2024.5.15.; 오마이뉴스, 「전문가의 일침, "병역특례 모범 답안 다 나왔는데..."」, 2026.10.9.

'점진적 축소'는 단계마다 새 형평 논란을 낳는다는 점에서도 시한이 필요하다. 아시안게임을 빼고 올림픽만 남기면 세계선수권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이, 종목별 기준을 두면 이 종목은 왜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축소는 시한까지의 경과 조치로만 의미가 있다. 폐지의 원칙은 네 가지다. 병역은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지는 의무이며 대회 성적이라는 개인의 성취가 예외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보편성, 특례의 확대가 아니라 폐지로 형평을 맞추는 형평성, 연도가 적힌 시한, 그리고 적용 시점과 대상을 미리 알려 선수와 예술가가 경력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예측 가능성이다.

2. 과도기 편입 기준: 아시안게임은 지금, 올림픽은 2028년까지

□ 아시안게임 1위 편입 삭제는 국회를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체육 분야에서 가장 먼저 달아야 할 통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편입되는 일률 기준이다. 최근 5년(2022년~2026년 8월) 체육요원 80명 중 65명이 아시안게임을 통해 편입됐고, 2026년 대상 43명 중 36명이 프로 단체종목 선수였다는 사실은 제도의 수혜가 '세계 최상위 소수 인재'라는 2019년의 유지 논리와 멀어졌음을 보여준다. 주호영 의원안이 아시안게임 1위 편입을 삭제하고 편입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한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기준이 오르내리던 '고무줄 적용'을 끊는 중요한 진전이다. 본 보고서는 여기에 세 가지를 보탠다. 첫째, 아시안게임 1위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있으므로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삭제할 수 있다. 다음 아시안게임은 2030년이어서 지금 삭제해도 요건을 이미 충족한 사람이 없고 소급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국정감사에서도 시행령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미뤄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¹³⁸⁾ 정부는 11월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올림픽 3위 이상 편입은 폐지 시한과 연동해 2028년 대회까지만 한정한다. 셋째,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할 수 있게 한 조항은,¹³⁹⁾ 개별 선수나 예술인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판단으로 번지지 않도록 폐지 시한까지의 경과 기간에만 적용되도록 한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

□ 기준 재설계의 한계: 점수표를 바꿔도 논란은 남는다

기준 조정으로 제도를 존속시키는 시도는 전에도 있었다. 누적점수제는 2013년 병무청안과 2015년 한국스포츠개발원 연구에서 설계됐고, 당시 시산으로는 편입 기준 100점 적용 시 기준 인원 대비 71.4%, 90점 적용 시 35.7%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으나 체육계 반발로 무산됐다.¹⁴⁰⁾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거나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종합해 기준을 다시 짜자는 최근의 제안도¹⁴¹⁾ 메달 한 번의 일률성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과도기의

138) 앞의 각주 135의 자료 참조.

139) 스포츠경향, 「"아시안게임 금메달=병역특례" 없앤다...주호영, 기준 폐지 법안 발의」, 2026.10.7.

140) 앞의 각주 30의 자료 참조.

보완책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종목마다 대회 체계가 달라 어떤 점수표를 만들어도 종목 간 형평 논란과 저위상 대회 반복 출전 문제가 남고,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제도는 오래 남는다. 본 보고서는 기준 재설계를 폐지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한까지의 경과 조치로 보며, 선수 경력은 편입 기준이 아니라 복무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 기준 논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 과도기의 단체종목 출전 요건 복원과 e스포츠 처리

폐지 시한까지 올림픽 단체종목 편입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2020년 삭제된 '실제 출전 선수' 요건을 되살리되, 교체 출전 남용을 막기 위해 대회 전체 경기 시간의 절반 이상 또는 경기 수의 절반 이상 출전한 선수로 한정해 이름만 올리고 편입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2019년 개선방안이 교체 출전 폐단을 이유로 요건을 없앤 뒤 출전 없이 편입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e스포츠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2024년 11월 e스포츠를 아시안게임에서 분리해 2027년부터 별도 대회로 치르기로 하면서 현행 시행령상 편입 대상에서 사실상 빠졌다.¹⁴²⁾ 이는 별도 입법 없이 생긴 공백이므로, 폐지 일정과 함께 시행령에 처리 기준을 명시해 논란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예술 분야: 축소가 아니라 2027년부터 편입 중단

병무청이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국제대회 2위 이상에서 1위로의 상향과 국내대회 부문 통합·편입 인원 축소는¹⁴³⁾ 인원을 줄이는 안이지 제도를 끝내는 안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예술요원 편입을 2027년부터 국내·국제대회 모두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근거는 네 가지다. 첫째, 최근 5년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이고 '무늬만 국제대회'로 편입된 사람이 10년간 216명이어서¹⁴⁴⁾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에서 가장 먼 경로다. 둘째, 편입 인원이 2020년 18명, 2021년 21명, 2022년 27명, 2023년 13명, 2024년 21명으로 연 20명 안팎이어서 폐지의 충격이 작다. 셋째,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대회 주기가 없어 경과 규정이 단순하다. 2026년에 열린 대회의 입상자까지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넷째, 비교한 12개국 가운데 콩쿠르 입상을 이유로 현역을 면하는 나라는 없었고, 수상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대만조차 문화상 수상자를 선발해 6개월 대체복무를 시킨다([표 7] 참조). 국내 개최 국제대회의 외국인 참가 비율 공개 같은 보완책은 중단 전까지의 과도기에만 필요하다.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경로는 전통예술 보존이라는 별도 목적이 있으므로 폐지와 분리하되, 면제가 아니라 복무 중 전승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일관된 처리다.

141) 이데일리, 「국힘 "태극마크 목표가 군 면제? 병역특례 재설계해야"」, 2026.10.5.

142) 스타뉴스K, 「AG 무대 떠나는 e스포츠...2027년 쿠웨이트서 독립 종합 대회 출범」, 2026.9.28.

143) 앞의 각주 37의 자료 참조.

144) 앞의 각주 36의 자료 참조.

3. 복무 방식 전환: 상무 확대가 아니라 메달리스트의 복무 경로로

□ 메달의 보상은 면제가 아니라 복무 중 선수 생활의 보장

폐지가 선수 경력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면제를 대신할 복무 형태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 선수 생명을 지키는 수단은 면제가 아니라 복무 안에서의 훈련·대회 보장이며, 국내 현업 복귀율도 국군체육부대 78.91%, 일반 현역병 12.49%로 차이가 컸다. 국군체육부대 확대는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함께 말하는 대안이다.¹⁴⁵⁾ 본 보고서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대의 성격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첫째,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와 국가대표로 확정된 선수에게는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선발이 아니라 권리로 보장한다. 대만이 메달이 아니라 국가대표 자격을 기준으로 삼듯, 메달의 보상을 면제에서 '복무 중 선수 생활 보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둘째, 정원 배분에 원칙을 둔다. 국군체육부대는 현재 하계 24개 종목 322명, 동계 1개 종목 4명 규모이고, 동계종목은 2026년 8월 22명 정원 확보를 통보받고도 9월 말까지 모집 일정이 없어 일부 선수가 일반 입대를 택했다.¹⁴⁶⁾ 프로 리그가 있는 종목은 정원에 상한을 두고, 프로 리그가 없는 종목과 동계 종목에 정원의 절반 이상을 배정해, 특례가 프로 선수에게 집중돼 온 문제가 부대 안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복무 중 훈련·대회 참가를 규정으로 보장한다. 이스라엘처럼 부대 활동 시간의 상한을, 핀란드처럼 체육 파견휴가 일수를 명문화하고 국제대회 참가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넷째, 혜택에는 의무가 따른다. 복무 중 국가대표 소집 거부, 훈련 불참, 품위 손상이 있으면 일반 부대로 전환한다. 대만의 '불이행 시 현역' 원칙과 싱가포르의 특권 즉시 박탈이 그 모델이다.

□ 입영 연기와 예술 분야의 복무 경로

입영 연기는 폐지 뒤의 보완 수단이다. 현행 입영 연기 상한은 체육 분야 우수자 27세,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30세인데, 이는 프로 선수의 전성기와 겹치는 연령이다. 연기 상한을 30세로 올리되 연기는 본인 신청이 아니라 경기단체 추천과 병무청 심사를 거쳐게 하고, 연기 중에는 국가대표 활동과 국내 리그 활동 같은 공적 조건을 붙이며, 대표팀을 떠나거나 연기가 끝나면 국군체육부대 또는 일반 복무로 반드시 이어지게 하는 싱가포르식 설계가 필요하다.¹⁴⁷⁾ 예술 분야는 군악대·국방홍보원 특기병 경로를 순수예술로 넓혀 복무 중 연주·공연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군악대 특기병 선발을 기악·성악·무용으로 넓히고, 복무 중 국립교향악단이나 국립발레단 같은 국립예술단체에 파견돼 연주·공연하는 경로를 군 소속을 유지한 채 허용하면 된다. 연예병사 폐지 뒤 육군 군악대 특기병 선발 분야가 보컬·뮤지컬·타악 등으로 넓어진 경험과,¹⁴⁸⁾ 징집병 가운데 전문 연주자를 선발해 군악대에 배치하는 스위스·핀란드·오스트리아의 방식이 참고가 된다.

145) 앞의 각주 96, 141의 자료 참조.

146) 이데일리, 「하계 322명, 동계 4명...상무 선발 지연에 속타는 동계 선수들」, 2026.10.2.

147) 뉴시스, 「BTS 입대연기법 내년 6월 시행...품위 손상 시 연기 취소」, 2020.12.22.

148) 데일리한국, 「연예병사 폐지 12년...군악대·조교로 활약하는 스타들」, 2025.10.6.

4. 과도기 복무관리: 공개, 상향, 즉시 취소

□ 공익복무 월 40시간, 대상은 취약계층, 이행 현황은 실명 공개

폐지 시한까지 제도가 남아 있는 동안, 그리고 이미 편입된 요원에 대해서는 복무관리가 지금보다 엄격해야 한다. 분기 24시간을 못 채우면 경고와 5일 연장, 경고 4회 이상 또는 허위 실적이면 고발이라는 2019년 개선방안의 틀로도¹⁴⁹⁾ 5년간 경고 103건, 취소 7건이 나왔다. 공익복무 544시간은 34개월 기준으로 월 16시간에 불과하다. 본 보고서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시간을 월 40시간(34개월 1,360시간) 이상으로 올리고 봉사 대상을 도서·벽지 학교,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같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정하며, 엘리트 선수 대상 지도처럼 본업과 구분되지 않는 활동은 인정 시간에서 제외한다. 2020년 문체부 자료에서 체육요원 봉사활동 853회 중 591회(약 69%)가 엘리트 선수 대상이었고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은 7회(약 1%)에 그쳤다.¹⁵⁰⁾ 둘째, 편입자별 공익복무 이행 현황(복무기관, 시간)과 검직 허가 내역을 병무청이 분기마다 공개한다. 2018년 장현수와 2023년 김진야의 실적 조작, 2022~2026년 무허가 검직 22건은 모두 비공개 관리 아래에서 일어났다. 공적 혜택을 받는 사람의 의무 이행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가장 비용이 적은 감시 장치다. 셋째, 제재를 단순화한다. 허위 실적은 1회 적발 시 형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편입을 취소하고, 이수 미달은 경고 1회당 5일이 아니라 30일을 연장한다.

□ 검직: 수익의 환원이 아니라 복무 중 광고·후원 금지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기여금 3법은 복무 중 소득 500만 원 초과분에 5~30%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¹⁵¹⁾ 복무 중 수입을 환수하자는 논의는 2011년과 2022년의 학계 논문에서도 제기됐다.¹⁵²⁾ 그러나 기여금은 복무 중 영리 활동을 전제로 한 과세여서 복무 중에 광고를 찍는다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다. 본 보고서는 복무기간 중 상업 광고와 후원 계약을 금지하고 소속팀 급여와 공익 광고만 허용하며, 위반 시 편입을 취소할 것을 제안한다. 현역병은 영리 활동이 금지되고 사회복무요원도 검직이 제한되는데, 같은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만 광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금지가 어렵다면 기여금은 차선택이 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세율·기준소득의 적정성과 부담금 법리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 복무 지휘·감독(문체부)과 제재(병무청)로 나뉜 관리 체계는 폐지 시한까지 병무청 중심으로 일원화해 관리 공백을 줄일 필요가 있다.

149) 앞의 각주 4의 자료 참조.

150) 앞의 각주 8의 자료 참조.

151) 앞의 각주 53의 자료 참조.

152) KPI뉴스, 「병역 특례 기간 수입은 국고 환수? 불공정 특혜 근절책 각양각색」, 2026.10.12.

5. 대중문화예술인 형평성: 모든 분야에 같은 연기와 활동 보장

□ 특례를 넓히는 대신, 모든 분야에 같은 '복무 중 활동 보장'을

BTS 사례가 드러낸 형평성 문제의 해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2019년 정부가 제외를 결정한 논리, 즉 객관적 기준의 부재와 대체복무 감축 기조는 2026년에 더 강해졌고, 이번 논란에서 BTS는 특례 확대가 아니라 폐지의 근거로 거론됐다. 온라인에서도 BTS를 언급한 댓글 중 입장을 밝힌 댓글의 96.0%가 폐지·축소였다. 따라서 형평성의 방향은 체육·순수예술의 특례를 대중문화와 같은 수준, 즉 특례가 없는 상태로 맞추는 '하향 수렴'이어야 하며, 이는 폐지와 같은 말이다. 그 대신 분야와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혜택, 즉 입영 연기와 복무 중 활동 보장을 적용해야 한다. 2020년 입영연기법이 이미 그 틀을 마련했으나 문화훈장 요건 때문에 BTS 외에는 적용이 불가능했으므로, 연기 요건을 훈장이 아니라 공적 심사로 바꾸고 체육·예술·대중문화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병역법 제60조의 입영 연기 대상에서 체육, 순수예술, 대중문화를 '우수 인재' 한 범주로 묶어 상한을 30세로 통일하고, 요건을 문화훈장이 아니라 병무청 심사위원회의 공적 심사로 바꾼다. 폐지 뒤에 남는 혜택은 분야와 관계없이 입영 연기와 복무 중 활동 보장(국군체육부대, 군악대, 국방홍보원) 두 가지뿐이어야 한다.

6. 법적 안정성과 입법: 소급 금지, 경과규정, 시한의 법제화

□ 이번 대회 선수는 현행 기준, 다음 대회부터 새 기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소급 적용은 온라인 여론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된 요구 가운데 하나였고, 국방부 발표 이후 유튜브 댓글에서 그 비중은 13.9%에서 25.4%로 늘었다. 그러나 요건을 이미 충족한 사람에게 기준 변경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폐지는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으로 다음 대회 입상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대신 현행 기준으로 편입되는 선수에게는 강화된 복무관리와 검직 기준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 선수 언행에 대한 제재는 병역 제도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윤리 규정과 선발 규정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끝으로, '점진적 축소·궁극적 폐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문구에 머물지 않으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는 11월에 나올 병무청 연구용역 결과나 국방개혁 기본계획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폐지 연도는 정부 계획이 아니라 법률이 정해야 하고, 시행령으로 가능한 조치(아시안게임 1위 삭제, 단체종목 출전 요건 복원, 예술요원 편입 중단)는 정부가 연내 착수해야 한다. 주호영 의원안의 편입 요건 법률 규정에 폐지 일몰 조항, 국군체육부대 재설계 계획, 복무관리 공개와 즉시 취소를 더해 하나의 개정안으로 심의하고, 부칙에 병무청이 매년 국회 국방위원회에 편입 인원, 복무관리 위반, 국군체육부대 전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이행 점검 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예측 가능한 방안이다. 2007년 월드컵·WBC 조항 삭제, 2013년 누적점수제 무산, 2019년 폐지 검토 무산, 2024년 TF의 공전은 제도의 운명을 대회 성적과 여론의 온도에 맡겨 온 결과다. 연도가 적힌 폐지만이 이 반복을 끝낼 수 있다.

Ⅶ. 결론

예술·체육 병역특례는 1973년 병역자원이 넘치던 시기에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53년 동안 대회 성적과 여론에 따라 기준이 확대와 축소를 반복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수는 44년 만에 가장 적었지만 특례 대상은 43명에 이르렀고 그중 36명이 프로 축구·야구 선수였다. "저 군대 안 갑니다"라는 한마디는 돌출 발언이 아니라, 금메달 하나로 현역 복무를 면하는 제도가 선수에게 가르쳐 온 동기의 솔직한 표현이었다.

본 보고서의 결론은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폐지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해외 비교다. 본 보고서가 비교한 해외 12개국 어디에도 대회 성적 한 번으로 현역 복무를 면하는 제도는 없었다. 대만은 국가대표 자격에 12일 훈련과 5년의 관리 의무를 붙였고, 이스라엘·스위스·핀란드·오스트리아는 복무 안에서 훈련과 대회를 보장하며, 싱가포르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복무시키고 특권을 남용하면 즉시 박탈한다. 국가대표의 기량을 지키려는 목적은 어느 나라나 같지만, 그 수단이 면제인 나라는 없었다.

둘째는 여론이다. 네이버뉴스·유튜브·커뮤니티 댓글 220,632건을 전수 판독한 결과 유효 댓글의 90.2%가 폐지·축소였고, 공감 수로 가중하면 97.8%에 달했다. 네이버뉴스에서 유지·보완 댓글은 공감보다 비공감을 2.6배 더 받았고, 폐지·축소 비율은 다섯 플랫폼 모두 70%를 넘었다. 국방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뒤에는 소급 적용 요구가 늘었다. 분노의 출발점은 선수의 태도였지만 종착점은 제도였으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온라인에서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국내 운영 실태도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체육요원 80명 중 65명이 올림픽이 아닌 아시안게임으로 편입됐고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혜택을 받았으며, 예술요원의 86.6%는 국내대회 입상자였다. 5년간 경고 103건과 취소 7건, 무허가 겸직 22건은 복무관리의 허점을, 2040년 13만~15만 명대로 줄어드는 20세 남성 인구는 제도의 토대가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빌보드 1위를 하고도 전원 복무한 BTS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대비는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이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기준을 손질해 제도를 존속시키는 방식은 2007년과 2019년에 시도됐고 2013년에는 무산됐지만, 어느 것도 다음 논란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를 밝혔고 여야도 축소에 공감했다. 남은 과제는 폐지에 이르는 길을 법으로 정하는 일이다. 2028년 LA 올림픽을 마지막 편입 대회로 하고 2029년부터 신규 편입을 끝내는 일몰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아시안게임 1위 편입은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부터 삭제하고, 예술요원은 2027년부터 편입을 중단해야 한다. 그 대신 메달리스트와 국가대표에게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보장하고 정원을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재편하며 복무 중 훈련과 대회 참가를 규정으로 보장해, 면제가 아니라 '복무 중

병행'으로 선수 경력을 지켜야 한다. 제도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공익복무를 늘리고 이행 현황을 공개하며 복무 중 광고·후원을 금지하고, 이번 대회 선수에게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 병역의 예외는 국민이 납득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53년 된 제도가 남긴 교훈이다.

※ 온라인 여론(빅데이터) 분석 방법 및 한계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량은 조회 조건 안의 최댓값을 100으로 한 상대지수이며 절대 검색량이 아니다. 2026년 10월 월간 지수는 1일부터 11일까지의 부분 집계다. 검색어 묶음에 '군면제'가 들어 있어 예술·체육 분야 밖의 검색(2016년 이공계 병역특례 등)도 함께 잡힌다. 썬트렌드 클라우드의 언급량·연관어·감성어는 해당 서비스의 수집 범위와 분류 기준을 따르며, '병역특례' 키워드의 블로그·티스토리 문서는 대부분 산업기능요원 관련 광고성 문서여서 채널별 분석에서 제외했다. 감성어 빈도는 문서 수가 아니라 감성 어휘가 출현한 빈도다.

댓글 자료는 다섯 플랫폼에서 모았다. 네이버뉴스 댓글은 썬트렌드 클라우드 원문 수집 기능으로 2026년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게시된 관련 기사 1,466건의 댓글 107,778건을 받은 뒤, 기사 제목에 병역·아시안게임·대표팀 등 주제어가 없는 기사(정치·사법 등 무관 기사)를 제외하고 1,267건 기사의 댓글 102,075건을 분석했다. 유튜브 댓글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8일 사이(한국 시각)에 게시된 뉴스·분석 영상 28건(방송사·언론사 26건, 개인 채널 2건)의 댓글을 영상별로 전수 수집했다. 유튜브가 노출하는 댓글에 한정되며 삭제·숨김 댓글은 포함되지 않는다. 커뮤니티는 에펠큐리아(주제 무관 게시글 1건과 베스트 댓글 중복 노출분 111건 제외), 엠엘비파크, 클리앙(관련 게시글 댓글)의 수집 댓글 전부를 분석했다.

입장·주제 판정은 본 보고서가 정한 분류 규칙(폐지·축소, 유지·보완, 입장없음 및 14개 주제)에 따라 수집 댓글 전부를 판독한 결과다. 판독은 대규모 언어모델을 이용해 1,500건 단위로 나누어 같은 규칙을 적용했으며, 본 보고서가 규칙과 결과 일부를 검토했다. 커뮤니티 댓글은 비꼼과 욕설도 문맥에 따라 입장으로 읽는 '중립 최소화' 원칙을 적용했으므로 자료 간 입장없음 비율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유효 댓글'은 입장없음을 제외한 댓글이다. 공감 수는 네이버 공감, 유튜브 좋아요(표시 근삿값), 에펠큐리아 추천, 클리앙 공감이며 엠엘비파크는 댓글 공감 기능이 없다. 국면 구분은 네이버·커뮤니티는 댓글 작성일, 유튜브는 영상 게시일 기준이다. 댓글 작성자는 해당 플랫폼 이용자이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1. 법령

- 「병역법」 (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2026.10.2. 시행) 제2조 제1항 제10호의3, 제33조의7~제33조의11.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00호, 2026.8.25. 일부개정, 2026.8.28. 시행) 제68조의11~제68조의20.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562호), 1973.3.3. 제정.

2. 국내 정부·국회·공공기관·연구기관 자료

- 국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21817), 2026.10.6. 제안.
-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제도소개(편입기준·연혁·관련 법령)」, 병무청 누리집, 2026.10.12. 접속.
- 한국스포츠개발원(김대희·성문정),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5.4.
- 현대경제연구원(정민 외),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효과」, 현안과 과제, 2018.12.18.

3. 학술논문

- 이은·우승석·박소영, 「엘리트 남성선수의 군복무별 현업복귀율과 선수경력 비교 분석」, 『체육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2020, 593~602쪽.

4. 해외 정부·공공기관·외신 자료

- 運動視界, 「運動員要不要當兵? 盤點台灣運動員免役及替代役規定」, 2025.6.5.
- 中華民國 運動部, 「國家體育競技代表隊服補充兵役辦法」 (2001.6.6. 제정, 2015.5.20. 개정), 主管法規共用系統, 2026.10.12. 접속.
- 內政部, 「115年下半年役男申請服一般替代役甄選作業實施計畫」 (2026년 하반기 일반대체역 신청·선발 실시계획, 台內韌字第1151213412號), 2026.3.9.
- 文化部, 「公告文化部辦理115年文化獎項及電子競技專長類別替代役評選作業規定」 (문화상·e스포츠 전문 분야 대체역 평가·선발 작업규정 공고, 文綜字第1153003688號), 2026.2.5.
- 文化部, 「115年文化獎項及電子競技專長類別替代役評選通過名單」 (2026년 문화상·e스포츠 전문 분야 대체역 평가·선발 통과 명단), 2026.
- Bundeswehr, "Sportsoldat werden", 2025.12.9.
- Bundeswehr, "Neuer Wehrdienst"(새 병역제도 안내), 2026.10.14. 접속.
- Bundeswehr, "Neuer Wehrdienst im Musikkorps"(군악대 복무 안내문) 및 "Musikstudium in der Militärmusik"(군악대 음악 전공 과정 안내문), 2026.10.14. 접속.
- Connection e.V., "Substitute payment, denaturalisation, withdrawal and asylum - An overview" (튀르키예 병역 개관), 2024.2.6.
- Israel Defense Forces(IDF) 입대 안내 누리집(mitgaisim.idf.il), 「운동선수·음악가·예술가·무용수: 이스라엘군의 우수자 제도」 (히브리어 원문, 제목은 본 보고서 번역), 2026.10.12. 접속.
- JURIST, "Israel ministers vote unanimously in favor of law extend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2024.7.15.
- Lawspot, "Προνόμια διακριθέντων αθλητών"(그리스 우수 선수 특전), 2023.10.1. 수정.
- Malay Mail, "Olympic champion Joseph Schooling issued warning over cannabis use, has all sporting privileges revoked, says Singapore Defence Ministry", 2022.8.30.
- Militär Aktuell, "Bundesheer zählt aktuell 451 Heeressportler", 2026.3.1.
- Militär Aktuell, "Basisausbildung der Pioniere und Musiker in Bregenz", 2022.8.5.
- Puolustusvoimat, "Puolustusvoimien Urheilukoulu"(스포츠학교 소개 자료, Suomen Judoliitto 게시), 2025.12.
- Quốc hội Việt Nam, 「Luật Nghĩa vụ quân sự số 78/2015/QH13」 (베트남 병역법) 제44조, caselaw.vn, 2026.10.14. 접속.
- Schweizer Armee, "Spitzensport-Rekrutenschule 79", 2026.10.12. 접속.

- Schweizer Armee, "Militärspiel Heer"(군악대 안내문), 2026.
- Singapore Ministry of Defence, "Oral Reply by Minister for Defence Dr Ng Eng Hen, to Parliamentary Questions on National Service Deferment", 2018.8.6.
- Singapore Ministry of Defence, "Reply to Media Queries on the Rejection of Benjamin Davis' Deferment from Full-time NS", 2018.7.18.
- Swiss Ice Skating, "Förderung des Spitzensports durch die Armee für Eiskunstlauf und Eistanz", 2024.9.15.
- Thailand Law Online, "Thai Military Service: Exemptions and the Draft Lottery", 2026.10.12. 접속.
- Thư viện pháp luật, "Vô địch AFF Cup có được miễn nghĩa vụ quân sự không?" (베트남 병역법 해설), 2023. 수정.
- Thư viện pháp luật, "Nghệ sĩ nam ở Việt Nam có bắt buộc phải đi nghĩa vụ quân sự không?"(베트남 남성 예술인의 병역 의무 해설), 2024.5.20.
- Yle, "Puolustusvoimissa Ysäri on erilainen loppusota: siellä soi Freestyler"(핀란드 징집병 군악대), 2016.8.18.
- Νόμος 3421/2005, «Στρατολογία των Ελλήνων και άλλες διατάξεις» (그리스 병역법 ΦΕΚ Α' 302/13.12.2005) 제13-29-41조, nomoskopio.gr, 2026.10.14. 접속.
- หน่วยบัญชาการรักษาดินแดน(태국 육군 국토방위사령부),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บราชการทหาร พ.ศ. 2497» (태국 병역법, 1973년 개정까지 반영한 통합본) 제13-14-27-29조, 2026.10.14. 접속.
- Коммерсантъ, "Труба зовет"(2013년 가을 징집과 스포츠 과학 중대), 2013.10.15.
-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03.1998 № 53-ФЗ "О воинской обязанности и военной службе"» (러시아 병역법, 2026.8.4. 개정판) 제23-24조, 2026.10.13. 접속.
- Томская област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филармония, "Почему ансамбль Александрова называют ли цом армии?"(알렉산드로프 앙상블 소개, 게시일 미표기), 2026.10.14. 접속.

5. 언론 보도

- 경향신문, 「2018년 시작된 BTS 병역특례 논란, 병역법 개정안까지 나왔지만 입대로 마무리」, 2022.10.17.
- 경향신문, 「황희 문체부 장관, BTS 등 대중문화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촉구」, 2022.5.4.
- 경향신문, 「BTS 제이홉 군 복무 마치고 전역」, 2024.10.17.
- 경향신문, 「"종목 제한 등 단계적 축소"...여, 병역 특례 제도 손질 착수」, 2026.10.7.
- 국민일보, 「예술 병역특례 86%가 '국내대회'...병무청 "국제콩쿠르 1위로 상향"」, 2026.10.12.
- 국민일보,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 전면 폐지」, 2016.5.16.
- 노컷뉴스, 「인구절벽에 병역자원 부족...산업지원 대체복무 1천3백명 감축」, 2019.11.21.
- 대전일보, 「병무청장 "AG 선수들 연행 유감... 특례 개선요구 무겁게 받아들여"」, 2026.10.12.
- 뉴스1, 「최근 5년 병역특례 선수 10명 중 8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6.10.7.
- 뉴스핌, 「'BTS 병역법' 오늘 공포...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병역연기 대상에 포함」, 2020.12.22.
- 뉴스핌, 「'BTS' 제이홉, 4월 18일 원주 36사단 입대...진, 연천 5사단 조교 복무 중」, 2023.4.14.
- 뉴스핌, 「국힘 주호영 의원, 'AG 금메달 병역 특례' 폐지 법안 대표 발의」, 2026.10.8.
- 뉴스핌, 「만 21세에 문화훈장...BTS 말고 가능한가요?」, 2021.2.24.
- 뉴스핌, 「육군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4주→3주로 단축...손흥민 효과?」, 2020.5.17.
- 뉴시스, 「[스잘알]양정보에서 손흥민까지...한국 체육요원 병역특례 변천사」, 2020.10.26.
- 뉴시스, 「메달=軍복무 면제...다른 징병제 국가들 봐도 우리만 '튀는 제도'」, 2026.10.11.
- 뉴시스, 「문체부 "티켓 판매는 예술요원 봉사서 제외...BTS 논란은 일단락"」, 2019.11.21.
- 뉴시스, 「아시안게임 금 따고 병역특례...제도 개선 모색」, 2018.9.3.
- 뉴시스, 「이종섭 "공정·형평성 위해 BTS 병역복무가 바람직...입대하면 활동 보장"(종합)」, 2022.10.4.
- 뉴시스, 「정부, 국정회의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 확정」, 2019.11.21.
- 뉴시스, 「최휘영, '무늬만 국제콩쿠르 참석후 병역특혜' 지적에 "전수조사하겠다"」, 2025.10.14.
- 뉴시스, 「BTS 병역특례 도입, 국민 여론은...조사따라 엇치락뒤치락」, 2022.9.10.
- 뉴시스, 「BTS 입대연기법 내년 6월 시행...품위 손상 시 연기 취소」, 2020.12.22.
- 더팩트, 「[단독] '군 면제' 외친 이기혁·양민혁·박승수, 병역특례 신청은 아직」, 2026.10.9.
- 데일리안, 「제2의 장현수 또 없나...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 개시」, 2018.11.5.
- 데일리안, 「"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금메달 병역특례, 평등권 침해 소지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2026.10.6.

- 데일리안, 「[단독] 예술요원 병특, 국내 개최 국내대회에 집중돼...10년간 108명」, 2025.10.6.
- 데일리안, 「병역혜택 국제콩쿠르인데 참가자 83%가 한국인?...성일종 "재검토해야"」, 2023.10.14.
- 데일리안, 「병무청장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축소 검토 중"」, 2026.8.9.
- 데일리한국, 「연예병사 폐지 12년...군악대·조교로 활약하는 스타들」, 2025.10.6.
- 로이슈,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10.6.
- 매일경제, 「축구·야구 金 땀지만 ... 찜찜한 병역면제」, 2023.10.8.
- 머니투데이, 「"BTS도 대체복무 가능"...윤상현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개정안 발의」, 2021.6.25.
- 머니투데이, 「금메달보다 군면제? 자랑했다가 고개 숙였다...불붙은 병역특례 논란」, 2026.10.4.
- 머니투데이, 「이젠, BTS보다 성공해야 軍면제?...병역특례 논란 끝나지 않았다」, 2022.10.23.
- 머니투데이, 「투구수 '0', 금메달 무임승차..."이름만 올려도 군 면제"」, 2026.10.6.
- 머니투데이, 「홍소영 병무청장 "아겜 부적절 발언 매우 유감...예술 병역특례 기준 상향"」, 2026.10.12.
- 머니투데이, 「BTS 슈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마쳤다...휴가 소진 중」, 2025.6.19.
- 문화일보, 「5년간 예술·체육요원 7명, 공익 복무 미이행으로 병역 특례 취소...경고는 103건」, 2026.10.7.
- 미주중앙일보, 「전역모 쓰고 "군대 안 간다"는 국내...불붙은 '병역특례 폐지론'」, 2026.10.5.
- 서울경제, 「50년 넘은 대체복무, 시대 동떨어져...특혜논란 겹쳐 개편 불가피」, 2026.10.7.
- 서울경제, 「병무청장 "AG 선수들 병특 언행 매우 유감...특례 폐지해야" [국감 2026]」, 2026.10.12.
- 서울신문, 「"BTS 대체복무 전환, 찬성 60.9%·반대 34.3%"」, 2022.9.18.
- 서울신문, 「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법안 보류」, 2021.11.25.
- 서울신문, 「국방장관 "BTS 군에 오되, 연습시간 주고 해외서도 공연 가능"」, 2022.8.1.
- 서울신문, 「컴백 효과 2조 9000억 전망... BTS노믹스 2.0 시작됐다」, 2026.3.20.
- 서울신문, 「하이브, 분기 매출 첫 1조 돌파...BTS 컴백 효과 톡톡」, 2026.7.28.
- 서울신문, 「BTS '대체복무' 우세 여론에도... 국방장관 "확대 어렵다"」, 2022.9.21.
- 세계일보,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도 군대 간다?...주호영, 병역특례 폐지법 발의」, 2026.10.7.
- 스타뉴스, 「와! 김도영·문현빈 등 무려 16명 군 면제 혜택! KIA 3명 최다→삼성·롯데·SSG·KT·두산도 2명씩」, 2026.9.27.
- 스타뉴스, 「방탄소년단 RM·뷔→지민·정국, 오늘부터 '완전체 전역'..빅히트 "WE ARE BACK"」, 2025.6.10.
- 스타뉴스K, 「AG 무대 떠나는 e스포츠...2027년 쿠웨이트서 독립 종합 대회 출범」, 2026.9.28.
- 스포츠경향, 「"아시안게임 금메달=병역특례" 없앤다...주호영, 기준 폐지 법안 발의」, 2026.10.7.
- 스포츠조선, 「"파리올림픽 앞두고..." 병무청장, 체육요원 병역특례 전면재검토 발언에 발칵 뒤집어진 체육계」, 2024.5.15.
- 시대, 「병역특례 '대충 때우기' 5년새 100여건..."관리 강화" 목소리」, 2026.10.11.
- 시사오늘, 「'국위선양'서 '공정'으로...병역특례, 이번엔 바뀔까 [옛날신문보기]」, 2026.10.7.
- 시사저널, 「"군대 안 갑니다" 논란에...강신철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해 궁극적 폐지 목표"」, 2026.10.7.
- 시사저널, 「[시사저널 여론조사] BTS 대체복무 찬성 57.2%, 반대 41.5%」, 2022.9.23.
- 시사저널, 「16분 뒤고 '군면제 인증샷'...국회 청원까지 등장한 병역특례 폐지」, 2026.10.6.
- 시사저널, 「태극마크 품격 저버린 금메달 환호...'병역특례 공정성' 촉발」, 2026.10.10.
- 아시아경제, 「'경제효과 3兆' BTS 컴백...광화문 채운 세계인의 아리랑」, 2026.3.21.
- 아시아경제, 「"시행령 바꾸면 BTS도 면제, 그래도 군대갔다" 예체능 병역특례 공정성 논란」, 2025.10.21.
- 아시아투데이, 「44년 만에 최소 金, 병역 혜택 논란...아쉬움 남긴 아시안게임」, 2026.10.5.
- 연합뉴스,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궁극적 추진"(종합)」, 2026.10.6.
- 오마이뉴스, 「전문가의 일침, "병역특례 모범 답안 다 나왔는데..."」, 2026.10.9.
- 이데일리, 「'국위선양' 보상 당연 vs 구시대 산물 폐지...또 불거진 체육병역특례」, 2023.10.16.
- 이데일리, 「국힘 "태극마크 목표가 군 면제? 병역특례 재설계해야"」, 2026.10.5.
- 이데일리, 「'병역특례' 예술 특기자, 체육보다 1.5배 많아...대부분 국내대회 수상자」, 2018.9.10.
- 이데일리,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제, 시대착오적"...병무청장 "전면 재검토"」, 2018.10.23.
- 이데일리, 「하계 322명, 동계 4명...상무 선발 지연에 속타는 동계 선수들」, 2026.10.2.
- 이데일리, 「하이브 "BTS 진, 입영 연기 철회...순차적 병역 이행 예정"」, 2022.10.17.
- 이데일리, 「AG 때마다 '무더기 병역특례'...53년 된 '국위선양' 잣대 손보나」, 2026.10.5.
- 이데일리, 「BTS 콘서트 경제효과 '1회당 최대 1조2000억」, 2022.4.20.
- 이투데이,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1조7000억 원"」, 2020.9.7.
- 이투데이, 「국민 10명 중 6명 "BTS, 군대 안가도 된다"...'대중예술인 병역특례' 갤럽조사」, 2022.4.8.

- 이투데이, 「정부, 병역대체복무 인원 2026년까지 7500명→6200명으로...BTS 대체복무는 "인정 안 해"」, 2019.11.21.
- 이투데이,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2020.12.1.
- 전자신문,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BTS...」광화문 공연 한번으로 2666억 경제효과」, 2026.3.21.
- 조선일보, 「[단독] '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 특례 봉사자료 위조 적발」, 2024.9.4.
- 조세일보, 「예술·체육 병역특례 개편 급물살...여야·정부 "대상·방식 크게 손 봐야"」, 2026.10.7.
- 주간경향, 「"BTS도 다녀왔다"...정치권 병역특례 폐지론 확산」, 2026.10.5.
-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병역특례 축소 공감대...정부안 나오면 여야 논의"」, 2026.10.8.
-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장관, 병역특례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2026 국감]」, 2026.10.7.
- 파이낸셜뉴스, 「AG 금메달 따고 병역특례 받았는데...17명 '무허가 광고·후원' 적발」, 2026.10.1.
- 파이낸셜뉴스, 「男연예인 30세까지 입영연기하려면 문화훈장·포장 필요」, 2021.3.2.
- 파이낸셜뉴스, 「[병역특례 재점검] ① 병력 남아돌던 때 만든 제도..."군대 안 갑니다"에 존폐 기로」, 2026.10.10.
- 한국경제, 「"병역특례 없애자" 시끌...금메달 이미 뒀는데 입대 가능할까 [법알못]」, 2026.10.7.
- 한국일보, 「"군 면제, BTS가 더 자격 있어"...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 청원 등장」, 2026.10.6.
- 한국일보, 「국민 54% "BTS 군대 가야죠"... 20대는 73%가 "병역특례 반대"」, 2022.9.6.
- 한국일보, 「노웅래-성일종...'BTS 병역 특례' 눈덩이는 정치권이 굴렀다」, 2022.4.16.
- 한국일보, 「병역특례 줘라, 마라... 월드컵·WBC 4강이 '고무줄 적용' 시작이었다」, 2021.8.14.
- 한국일보, 「BTS 병역특례 찬반 팽팽... "포함해야" 46% vs "안 된다" 48%」, 2020.10.11.
- 허프포스트코리아, 「대회 자체보다 더 유명한 '코리안 병역특례'의 역사」, 2018.8.30.
- 헤럴드경제, 「'군 면제' 발언이 건드린 반백 년 병역특례...존폐 기로」, 2026.10.7.
- 헤럴드경제, 「뜨거운 감자' 된 BTS 병역특례...대중문화인 홀대 vs 불공평」, 2022.4.29.
- 헤럴드경제, 「유승민 "BTS도 군대 가는데...스포츠·예술 병역특례 공정한가"」, 2026.10.5.
- 헤럴드경제, 「최휘영 "병역특례 종합대책 강구"...AG '군 면제' 논란에 제도 손질」, 2026.10.7.
- KBS, 「'군 면제' 발언 논란에...안철수 "군대가 혐오시설?" 나경원 "특례 재검토 필요"」, 2026.10.4.
- KPI뉴스, 「병역 특례 기간 수입은 국고 환수? 불공정 특혜 근절책 각양각색」, 2026.10.12.
- SBS, 「[단독] 병역특례 취소됐다..."공익활동 하랬더니" 버젓이」, 2026.10.6.
- SBS, 「병무청 "예술 체육요원 60명 중 31명, 봉사활동 규정 위반"」, 2018.12.21.
- YTN Star,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아이돌 병역 연기엔 훈장 필수? 비현실적" 분통」, 2021.4.8.

6. 자료원

- 네이버뉴스 기사 1,466건의 댓글 원문(기사 게시 2026.9.19.~10.11.), 썬트렌드 클라우드 원문 수집, 2026.10.12. 수집.
-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월·일 단위 검색량 상대지수), 2026.10.12. 조회.
- 썬트렌드 클라우드(Sometrend Cloud) 간편 분석(언급량·연관어·감성어·원문), 분석 기간 2026.9.1.~10.11., 2026.10.12. 조회.
- 에펠포리아·엠엘비파크·클리앙 게시글·댓글 원문(게시일 2026.9.15.~10.11.), 2026.10.12. 수집.
- 유튜브 뉴스·분석 영상 28건의 댓글 원문(2026.9.28.~10.8. 게시), 2026.10.12. 수집.